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 ○ 규

부끄럽게도 그간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해 본 이후에야 그와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달하여, 대학을 졸업해 사회인이 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한 명의 민주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었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의 내용이 생소하기도 하고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필수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나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진행해 본 적이 없던 종류의 활동이었던 데다가,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는 법과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이 터부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고 듣는 일이 어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는 새삼스럽게 도 국회의원 공보물에 수많은 공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고,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면서는 제 주변의 학우분들이 저마다의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주변인의 입장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공약에 반영되고, 또 반영된 공약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시민감시활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간 저에게 법원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가는 곳'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 법정모니터링을 위해 법원에 들어섰을 때에는 그 권위와 엄숙함에 괜히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판사, 검사, 변호인과 재판당사자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법적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부담감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몇 회차 동안은 그러한 사법체계의 올바른 작동을 민주시민으로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에, 팬스레 자부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법정과 재판이 운영되는 과정도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치적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밀도 있게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느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명확한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는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기조차 조금 어렵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사법민주화를 위해서는 일반 대중의 법률 접근성이 보다 좋아져야겠다고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은 익숙해진 만큼, 또 활동이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만큼, 기회가 되어 다음 회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성숙하고 전문적인 모니터링활동을 수행해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법률소비자 담당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헝가리어과 임 ○ 원

저번학기는 교환학생 출국으로, 이번학기는 교환학생 학기진행으로 바빴던 한 학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봉사활동 소감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한 학기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는 의미겠지요. 이렇게 매년 봉사를 잘 마칠 수 있는 데는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매 학기 매 번 철저하게 확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4년에 한번씩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에 앞서 공약을 분류하는 것은 앞으로 4년간 공약이행률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제가 맡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누군가 조사하고 확인할지는 모르지만 이번 학기 봉사자들이 닦아놓은 기반을 잘 활용하여 23대 국회의원 선출 되는 해에는 더욱 정확한 최종버전의 공약이행률조사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판결문리서치 역시 매

학기 해오는 활동이지만 정말 판결문을 읽으려 대법원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갈 때 마다 새로운 사건과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아 감회가 새롭고 흥미를 느낍니다. 특히 군사사건의 경우 대법원 최종판결만 사이트에 공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심과 2심은 군사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판결문을 내려 받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사건 자체에 흥미를 느껴 귀찮거나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 학기

많은 판결문 리서치를 해 오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역울한 사람이 많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이 적어지더라도, 재판이 적어지더라도 법원이 최소로 필요로 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학기까지 총 5회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약 200시간을 달성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지 성실하게 관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하라는 것을 하고 모르는 것은 배워가면서 지내왔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시간도 채워지고 상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상당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달성한다는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달성해서 매 학기 만족하고 있고, 이 봉사를 언제까지 할 지는 모르지만 힘이 닿는 동안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므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봉사를 시작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많은 분들과 이 봉사를 계속해야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봉사를 하는지, 왜 하는지 많이 고민해보고 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학기 고생 많으셨고, 다음 여름학기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niversity of California Global Studies 최 ○

벌써 세번째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이번 학기에는 기존에 진행했던 번역 봉사를 이어서 하고, 필수 활동으로 2024년 법정치 설문조사 및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2024년 법정치 설문조사는 2023년에 진행되었던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익숙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나눠주며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설문자가 대학원생과 졸업자가 많아 조금 편향된 면이 있진 않았나 하는 점이 작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활동 자체는 대학 재학 중에도 비슷한 활동을 해본 경험이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설문지는 스스로도 작성해 보았는데,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몇몇 이슈들을 발견하게 되어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물론 본인이 유학생 출신이라는 변명을 조금 보태더라도, 스스로가 한국 내 정치 이슈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은 이전에 23년 봄학기 봉사활동으로 진행한 의정 모니터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려움이 없었다. 당시에는 공약 이행률 조사를 맡아 하였는데, 이번에는 공약분류와 분석을 했던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 공약 분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명옥 의원과 경기도 용인시병 부승찬 의원의 공약 분석을 진행했는데, 특히 서명옥 의원의 몇몇 공약들은 스스로도 일상에서 가까이 느끼는 불편에 대한 공약들이 있어 흥미로웠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2023년에 했던 국제법 관련의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번역 작업과는 달리 미국의 입법절차집행법을 번역하였는데, 미국에서 오랜 유학생 생활 경험에 있어서 더 재밌게 번역했던 것 같다. 20 페이지 가량 번역을 진행했는데, 내용은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부족해 아직 전부 읽지는 못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이어서 번역 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 ○ 민

이번 봄 학기에 저는 판결문리서치, 의정 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법에 관심은 많았으나

사회(자원)봉사 소감문

2024년도 봄학기 소감문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해 본 것도 아니고, 그저 기본적인 지식밖에 없는 저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봉사를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신청하기도 했었으나, 시간을 잘 낼 수 없었던 학기라서 정말 적은 활동만을 참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 기대했던 것과 같이 법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보람찬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사법감시배심원단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함과 동시에 재판을 기록하며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법원에 혼자 가서 재판을 방청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묘한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법정의 분위기,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역할과 피고인들의 태도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게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종종 법원에 가서 이전에 봤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사건도 방청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의 저는 법을 조사할 때 사법부의 재판, 판례 위주로 조사하고 분석했던 것 같은데 이번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입법부의 역할도 더 공부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 공약을 정확히 알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저는 세 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도 다양한 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판결문은 학교 교양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읽는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사건을 선정해서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죄다 읽고 요약, 분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형사, 민사, 행정사건을 모두 조사했더니 사건마다 판결문의 특성이 매우 달라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리서치를 많이 진행할수록 판결문을 읽는 법을 알게 되었고, 실무적인 재판에서 필요한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의 경우 2심제인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조사한 판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숙박 플랫폼 업체가 환불 금지 조항에 책임을 지는지, 즉 숙박 거래의 당사자인지가 쟁점이었던 시정명령취소 사건이었습니다. 다소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서 쟁점이 되는 법조문이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판례였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법의 해석을 좁게 해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 측이 주장한 삼면계약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법의 해석이 논리정연하여 이런 식으로 이해할 만한 판결을 내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얻은 것은 판결문을 통한 법리 습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리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차고,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한 학기 동안 하고 싶었던 활동은 다 한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 법정에 직접 가서 방청하는 활동을 더 많이 못 한 것에 대해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한 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고, 기회가 있다면 올해 남은 봉사들에도 지속해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김 ○ 혜

2024년 봄학기 법률연맹 봉사활동은 제가 처음으로 심도있게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열정을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봉사와 관련해서는 무지했기에 법률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고 찾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오리엔테이션 자료들, 막막해 보이는 각종 봉사활동들,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법률연맹의 분위기까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번 봉사활동

들을 다 끝내고 난 뒤에는 제가 훨씬 성장해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오히려 그 상당한 분량은 자세한 설명이었고, 바쁘게 돌아가는 법률연맹은 열정과 호의로 가득찬 친절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봉사활동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를 드렸을 때, 너무나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이 이번 봉사활동을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의 내용 자체로도 제게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주었고 이에 관해 후술할 것이지만, 봉사단체에서의 활동과 그 주체가 한 방향을 띄고 있는 모습, 다시말해 타인에게 봉사하는 정신과 이를 실행하는 주체의 정신이 같은 양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봄학기에 저는 번역봉사와 판결문 리서치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평소 영어에 친숙한 편이고 전공 등과 관련하여 법을 공부할 일이 많았는데, 번역봉사를 보고 제가 가진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융합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물론 법 조항의 특성상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길고 다소 딱딱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문화 내지는 상하원의 의례에 대한 대략의 이해 없이는 진행하기가 어려워 번역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다소 소요되었기는 했지만, 이 역시 제가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역시 1심 법원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며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어떤 판결에 대해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할지 고민하는 시간에서부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사안에 분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민에 젖어있기도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깊이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당초 제가 생각했던 것과 꼭 같은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봄학기 봉사활동이 끝난 지금, 시작하기 전보다 사고의 깊이가 깊어졌으며, 봉사자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도 알게된 것 같습니다. 이에 여름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해 둔 상태인데, 더욱 가열차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고려대학교 졸업 김 ○ 윤

지난 2023 가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면서 유익함을 느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은 뿌듯했던 감정을 다시 한 번 느끼고자 이번 학기에도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더 다양한 판결문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주력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진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하면서 텍스트로 정리된 법률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이러한 과정들을 직접 정리하면서 그저 남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다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법률 문언을 가지고 같은 사안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 근거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다른 사례들보다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린 사례들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리서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호기롭게 뛰어든 시작과는 달리 판결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 근거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년동안 법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례들을 접해온 법률 전문가들도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복잡하며, 적용 법률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이기에 그 사례들을 이해하고 판단을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판결문과 달리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결의 근거가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야 하고 그

에 맞서 새로운 판결의 정당성이 확연히 드러나야 하기에 판결문의 분량 자체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 읽는 것 자체가 힘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판결문을 읽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핵심 내용 및 쟁점들을 찾아내는 것 또한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각 판결들이 같은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보다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너무 힘든 것들만 선택한 것이 아닌가했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으며 나라면 어떻게 판결 했을지까지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 또한 향상된 것 같아 더욱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뿐만 아니라 이번학기에 필수 활동으로 진행한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및 국회의원 공약 조사 역시 유익했습니다. 사실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더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공약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약들을 정리하면서 이 공약들이 정말로 지켜질 수 있을지 또한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러한 공약들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한 이번 2024 봄 학기 봉사활동은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 ○ 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24년도 봄학기 봉사자로 활동한 경험은 저에게 꿈에 한 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막연히 법조인을 꿈꾸며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해볼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고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관을 방청해볼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법이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현장을 직접 감시하고 법과 정치의 실상과 원리를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의정 모니터링, 법정 정치의식 활동을 진행하며 민주사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과 실효성 있는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저 자신도 민주 법치의식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각자 다른 배움과 성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진행하였던 봉사활동인 대학생 대상 법정 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30명의 대학생과 접촉하며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개의 설문결과를 엑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대한민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확실히 현재 20대분들의 정치의식이 민주화 세대인 40~60대분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뒷세대와 다르게 20대분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혹은 보수로 정해두는 경향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 양극화의 해결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정치 참여 및 개선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각 세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견해차를 좁힐 수 없어 보였던 세대 간 정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와 이 활동의 값진 가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이번 학기에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법을 교과서와 강의의 통해 배워오기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법을 배워오면서도 항상 그 속에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새 잊고 있었던 것을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진행하며 깨달았습니다. 직접 재판 과정을 방청하며 현장감과 설렘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얼마나 법이 '현실'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 검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글이 아닌 현실로 바라보며 법조인은 누군가의 삶에 직결된 일을 다루는 직업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4월 10일 총선거의 당선후보의 공약을 정리하였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결코 스스로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정리하면서 공약이 대부분 30개가 넘는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선 후보의 선거공보를 보며 그 많은 공약 중 이행되는 것은 몇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기회였으며 동시에 지금까지 이에 무지하였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기 분들의 소감들과 함께 활동하는 봉사자분들을 보면 법조인을 꿈꾸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예비 법조인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과 학생들에게 추천할만한 봉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봉사의 결과를 통해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자신도 수동적인 국민에서 능동적인 민주 시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값진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김 ○ 윤

법조인을 막연히 꿈꾸던 학생이었던 제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시간만 채우는, 스펙을 위한 스펙쌓기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고, 지금까지 생각은커녕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의 가장 크고 특징적인 장점은 모든 종류의 봉사가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법과 관련성이 큰 봉사활동은 대부분 특정 단체의 법률 활동을 보조하는 봉사일 뿐이라서 봉사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데 일조한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뿐, 능동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활동을 보조하면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피상적인 감상에 그치기 쉽고 고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특성도 제게는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 법정 모니터링,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처음 법정에 가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뉴스로만 접했던 법정에 와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매우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께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직 공무원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참관하러 온 학생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셨습니다. 권위적일 거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제가 실제로 본 판사님들은 재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셨고, 재판 절차에 무지한 분께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 봐 열심히 설명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판결을 주로 보도하지만, 실제로 보니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광경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기사로만 접할 수 있었던 재판 당사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생활만 하다 보니 변호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어서 기본적인 절차도 계속 지연되는 많은 경우를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법적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생각보다 매우 낮고, 재판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없는 만큼 변호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는 법률을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원문이나 기사를 찾아보면서 관점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크게 실감하였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 얼마나 부정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는 제가 갖고 있던 법에 관한 편견 중 몇 가지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곳'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실제로는 재

판 당사자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고의와 과실이 있었고, 위법한 처분을 내리기도 판단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대화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복합적인 갈등을 풀어나가고,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에 대한 배상, 처벌과는 별개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재판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지 말지 고민할 때는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 반, 관련 경험이 없는 제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봉사 활동이든 안내 자료가 잘 정리되어있고, 담당 선생님께서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공부를 많이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강 ○ 은

법조계에 관심이 많고, 법학 공부에 흥미가 많아서 꼭 법률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소비자 법률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은, 실제 법정을 참관하고 정치인들의 공약을 분석해보는 활동을 하는 등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법정지 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님들의 재판에 참관한 적이 있었지만, 소비자법률연맹에서는 이 재판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주셔서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진행할 때 과연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더 궁금증을 가지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으로 인해 재판 참관에 흥미가 생긴 저는, 그 이후 개별 봉사활동에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고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체가 다 함께 법정에 가고 지도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개별로 재판 모니터링에 다닐 때는 제법 눈치가 보였습니다. 민사 재판 같은 경우, 재판장에 입장하는 인원이 많아 자리를 재판 당사자들을 위해 비워놓아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 모니터링을 몇 번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같은 경우는 한 사건이 길게 진행되기 때문에, 딱 한 사건에만 해당하는 인원이 입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 혼자 고요한 방청석에 앉아있게 되어 참관 시 재판 중의 당사자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기도 하는 민망한 상황이 더러 있어서 모니터링 활동에 있어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안내문과는 다르게 재판 시간이 바뀌어져 있어서 재판 방청이 불가능한 적도 있었고, 재판 당사자의 시각으로 재판이 연기되어 불가능했던 적도 있습니다. 재판장소도 예정과 바뀌어져 있거나, 재판 중임에도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해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만큼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법감시 배심원단에 첫 방청을 했을 때에는 알라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가 더러 있었는데, 법정모니터링을 계속 다니면서 익숙해진 용어가 생기고, 또 재판 진행의 흐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법률연맹운동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친구 한 명이 제가 하는 모니터링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해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친구가 제 메모장을 보고, 자신에 비해 재판장에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 추켜세워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부끄러우면서도 기분 좋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법정모니터링단 활동'에 주력했지만, 다음 학기에도 계속 참여하면서 더 다양한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 법정 지식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활동에 꼭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은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 외에는 단체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고 뿌듯함을 얻는 것도 좋지만, 또래의 봉사자들과 봉사를 매개로 함께 교류하는 것도 봉사자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별 봉사활동 이외에 봉사자들과 교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

설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강 ○ 승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던 중,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의 봉사활동 소감문을 블로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 형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을 모색하던 중,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었고, 블로그에서 읽은 소감문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두번째였고, 대학교 학기와 병행하느라 시간 조율이 어려워 의정모니터링,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판결문 리서치 1개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조인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며 평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공약을 제대로 살펴보고 않고 투표를 한 것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최소 50개부터 많게는 100개가 넘는 공약을 내세우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지를 보며 놀라웠습니다. 과연 이 공약들이 모두 지켜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공약들을 살펴보면 중 이거는 실천이 되면 좋겠다 혹은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공약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며 향후 선거가 있을 시에는 공약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공약인지 생각을 한 뒤에 나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면 더 보람찬 투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며 다양한 대학교, 다양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한 개로 모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법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꽤 많았으며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창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것에 20대 친구들이 조금 더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모습에 열중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기대하던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문이 없어 문의 메일을 드려도 판결문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장도 많이 받아 보며, 제가 원하는 판결문을 찾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정독하며 이러한 사건도 있구나, 이 사건의 쟁점, 요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모르는 법률용어를 찾아보며 법지식을 쌓아가는 제 모습을 보며 기쁨과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만이 아니라 스스로 판결문을 찾아보며 법과 관련된 소양을 기르고자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소감문을 쓰면서 더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봉사활동에 지원하여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 ○ 빈

처음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된 것은 로스쿨에 진학한 학교 선배로부터 로스쿨 입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놓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조언을 받을 때였다. 해외 법문번역,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그 선배는 법률연맹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좁게는 로스쿨 입시의 정성평가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되는 물론, 넓게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반적인 체계 및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해 준다고 말하며,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적극 추천하였다.

나 또한 그 선배의 경험담과 조언을 듣고 충분히 납득하여 봄 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각종 우려가 많이 있었어. 우선, 방학기간이 아니었기에 봉사활동을 1학기 대학 공부 및 7월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와 병행하여야 해서 많은 과업을 한꺼번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다.

또한, 이전에 법학회나 동아리와 같은 법 관련 대외활동을 해본 경험이 전무하여, '법 관련 활동 경험이 아예 없는 내가 법 관련 봉사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많았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러한 우려는 정말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적 여유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시간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시도해 보지 못한 봉사활동도 있긴 했지만, 시간을 유동적으로 내 스케줄에 맞게 조절해 가며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았다. 번역봉사와 의정모니터링 활동이 대표적이었는데, 내가 내 스케줄에 맞는 만큼의 작업 분량을 받아 와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 하루에 스케줄을 잘 잡아 학교 공부, LEET 시험공부, 봉사활동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면 어느 하나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활동 대부분은 법적인 전문지식 내지는 사전 경험 등이 필요 없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별 문제 없이 해나갈 수 있는 활동들이 점 또한 좋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활동들이 절대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었던 것 같다. 번역봉사를 할 때 받은 원문은 모국어인 한국어로 읽어도 어려운 법조문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라 일반적인 외국어 매체번역과는 궤를 달리하는 난이도였고, 의정모니터링 또한 당선자들의 공약이 복잡적이고 복잡하여 대체 어떻게 분류할지 고민했던 때가 많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외 법조문의 원리원칙들, 외국어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같이 내가 배우고 얻어가는 것들도 많았으며,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기에 그만큼 뿌듯함과 보람도 컸다. 그리고 법적인 사전지식 또는 경험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사법체계 및 법률 이론에 익숙해지는 것이 확연히 느껴져 법조인을 향한 첫 발걸음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 금번 봉사활동은 방학 중 활동이 아니었다 보니 시간적, 환경적 여건이 되지 않아 해보지 못한 봉사활동들이 제법 있다. 법정에 직접 방문하여 재판장을 체험하는 법정모니터링과 언론모니터링의 사실 분석, 판결문을 직접 찾아 분석하는 판결문리서치 등이 그러한 활동들이었다.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여름학기 봉사활동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만큼 이러한 활동들도 다양하게 해봄으로써 더욱 다양한 법적인 경험 및 인사이트를 축적하고 미래 법조인이 되는 길의 양분으로 삼고 싶다.

정리하자면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내게 있어서는 법 관련 첫 공식적 활동으로써 법조인을 향한 첫 걸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활동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준 감사한 경험이었다. 여름학기에는 봄 학기에 해보지 못한 봉사활동들까지 더욱 다양하게,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해 보고 싶다.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 ○ 찬

2024년 봄학기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배운 것도 많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사법감시배심원단, 판결문리서치, 번역봉사, 법정치설문조사,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서는 SAT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피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와 인권 침해였습니다. 3월 22일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갔을 때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다음 공판기일을 잡는 것으로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되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에 열리는 재판을 다시 신청해서 모니터링에 참여했고, 이전보다 실질적인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이 날 재판은 증거조사 절차와 이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피고인 측은 주민등록번호를 공소장에 첨부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내사 중 압수수색으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한 점을 들어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측 검증 신청 및 제

출 증거에 대한 조사는 ATM 송금 동영상 시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이 날 재판은 증거조사에 초점을 두어서 더 자세한 법리 다툼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쟁점 하나에 대하여 양 측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에서는 총 3개의 사건에 대하여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① 첫 번째 사건에서 제1, 2심과 제3심이 판단이 엇갈리는 쟁점은 대표이사인 피고가 감시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2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짊어지고 있는 감시의무를 너무 가법게 해석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3심에서 이를 잘 짚은 것이 제 견해와 일맥상통하였습니다. 회사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윤리규범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위법행위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 리서치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법리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내 법학회에서 세미나 발제를 하면서 사례처럼 언급하고 지나간 판례라 자세히 학습하지 못하였는데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② 두 번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한 반면 2심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2심이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2심은 이사의 보수 청구권 말고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어떠한 다른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사 지위 확인을 통해서 그러한 분쟁들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심리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법리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이러한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더 공부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③ 세 번째 사건의 핵심은 유턴 보조표지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하자가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조표지에 하자가 있고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고등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보조표지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하자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는 파악할 필요 없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록 유턴 보조표지에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하다고 표기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좌회전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회전을 할 수도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시 유턴' 표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보행자보호에 유턴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보조표지를 더 관리를 잘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피고가 원고 A와 같이 비정상적인 보조표지 이용을 알아차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다루었는데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손해배상액 책정 과정을 배울 수 있었는데, 손해배상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책정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번역봉사 활동에서는 미국 의회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Jefferson's Manual을 번역했습니다. 미국법을 접해본 것이 처음이라 번역에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법제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또한 평소 접하는 영어로 된 글과 다르게 어려운 법률 용어나 긴 문장이 많아서 꼼꼼히 번역하다보니 영어 독해 실력이 향상되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법과 비교해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보는 것도 관련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필수 봉사활동인 법정치설문조사와 의정모니터링 또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법정시설문조사는 여러 사람들의 정치성향, 정치의식, 법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었는데 사람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설문조사 파일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제 자신의 정치, 법에 대한 의식도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의정모니터링에서는 두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약을 분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흔히 의원이 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선거책자를 보니 이전 4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있으며 지역구의 미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같은 지역구 안에서 다른 당에 속해있는 의원의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은 해보지 못해 아쉬웠으나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윤 ○ 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학기 연속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는 '채권총론'이라는 법학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다 보면 수업 때 들었던 이론이 봉사활동 내용에 등장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내용이 수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비단 법학 수업뿐만 아니라, 제 전공인 도시공학에서도 종종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과 법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며, 이제는 어느 정도 봉사활동의 목적을 이해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 '채권총론'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한 이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법원 판결문을 찾아 전문을 읽어봄으로써, 해당 법률의 취지와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상권과 연대보증채무의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익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시간의 한계로 미처 분석하지 못한 판결문은 다음 학기에 이어서 분석하기 위해 따로 저장하였기에, 다음 학기에 가장 기대되는 봉사활동 중 하나입니다.

번역봉사 활동은 3학기 내내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미국연방 상원 매뉴얼을 번역하였습니다. 번역한 부분은 '선물'에 관한 규정이었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공직과 관련되지 않았거나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소한 물품을 허용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외한 선물은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봉사활동 중 하나였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봉사활동은 모두 혼자서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주변 대학생과 동년배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에 관한 개인적 의견이나 지식을 밝히기를 꺼리고, 특히 청년층일수록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설문조사를 부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익명 조사이기 때문에 적은 수이긴 하지만 8명에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임에도 다양한 결과가 나온 것이 놀라웠고, 이번 설문조사처럼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필수봉사활동인 의정모니터링 공약분류 활동은 지난 학기에 수행한 공약이행률조사와 연결되는 봉사활동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를 수행할 때, 공약이 전부 정리되어 있었고 이를 수정하고 이행하였는지 조사하는 활동을 하며 공약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였는데, 이번 공약분류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김충양 의원과 경기도 김포시갑 김주식 의원의 공약을 분류하며, 지난 활동 결과와 공약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있어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공약사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져보였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공약의 문제점을 지켜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김 ○ 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작은 움직임

저는 이번 2024년 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봉사활동이었다.'는 추천을 받음과 더불어,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문헌적인 법률 공부를 넘어 실무적이고 생동감 있는 법률 공부, 실질적인 법률의 활용도를 배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필수 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 의정모니터링 활동과 더불어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필수 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법의식, 정치의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법과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법과 정치가 입문하기에 있어서 상당히 장벽이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활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필수 활동인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는 다양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선거일과 당선 발표일 이후면 관심이 쏙 사라지는 국회의원의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 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실제로 참여하게 된 계기와 비슷하게 법률의 문헌적 공부에서 벗어나 법률의 실무적 활용도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의 실무적 활용에 대한 공부 뿐만 아니라,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에 대한 동기 부여, 많은 법조인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목표에 대한 방향성 설정 등 저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바로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보람찬 활동들이었습니다.

용기내어 법률소비자연맹에 봉사활동 신청 메일을 보내고 지금까지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진행한 결과,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법률적 지식과 소양, 법률을 통해 국민을 대하는 자세 등을 기를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법·정치의식설문조사,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더욱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라도 일으키자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있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법률적 지식과 소양에 대한 성장,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열정 및 동기를 얻을 수 있게 해준 뜻깊은 경험들이었습니다. 저의 20대에 이렇게 뜻깊은 경험이 남도록 도와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가능한다면 앞으로의 봉사활동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남기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송 ○ 민

로스쿨 진학을 목적으로 하여, 2021년 2학년이었을 때 진행했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4학년이 된 지금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입시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2021년 봉사의 기억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반추해보았을 때 법 관련 수업을 많이 듣지 못하여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했음에도 헌법 번역 등의 봉사활동이 저의 '리절 마인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도 번역을 필두로 하여 법조인이라는 꿈에 알맞은 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뉴햄프셔 주의 번역을 진행했던 지난 봉사와 달리 이번 번역 봉사에서는 미국 하원의 제퍼슨 매뉴얼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달리 문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법률문서의 형식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대륙법체계/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불문법의 색채가 짙은 영미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법률문서임을 고려해보자 왜 이러한 형식의 문서가 하원에서 구속력을 발휘하는지 금세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번역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들어온 법 관련 수업들과 비교법적 지식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 되어, 이번 봉사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이번에 새로이 도전하게 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현재 '고용복지와 법' 수업을 수강하고 있고, 최근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도 자주 들려오고 있는 만큼 노동법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보고 싶어 노동법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법원 판례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법 수업을 많이 들어봤지만 대법원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분석해 본 일은 거의 없었는데, 대법원의 논리구조가 현재 법학적성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기초논리학의 법률적 삼단논법을 정확히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1심, 2심 판결 역시 면밀히 분석하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법해석과 법 적용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체감할 수 있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노동법 분야의 대법원 주요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법활동이란 단순히 성문화된 법을 사례에 적용하는 기계적 활동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목적 및 사회 전반적인 사정,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동적 활동임을, 그러한 유동성의 목적지는 결국 사회정의임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를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로스쿨 진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시간을 뺏기지는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봉사를 통해 로스쿨 진학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로스쿨 진학 이후에도 다시 봉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 ○ 정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된 것은 동기 덕분이었다. 지난해까지는 '봉사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올해는 봉사의 '내용'에 초점을 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신청하고 싶다면 나에게 법조계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가 법 관련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법은 복잡하고 세세한 내용이 많으며, 잘못 다뤘다가는 사회에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문가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대학에 들어와서 법조계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은 교내활동에 불과했다. 학회에서 다른 학생들과 법 관련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 현직 법조인의 특강을 듣는 것, 상법, 저작권 관련 법, 가족법 등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 등 모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었지만 여전히 '법'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봉사활동은 나의 의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다.

약 3개월간 진행된 봉사활동을 하며 정말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타국의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 봉사부터 시작하여, 법, 정치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법원에 가서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는 법정 모니터링,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잘 지키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전단계로 진행되는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판결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석·요약하는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해보기도 했다. 이전까지 내가 직접 법조계에 뛰어들기 전에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활동들이었다.

사실 가장 기대했던 활동은 번역 봉사였다.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기에 자신있는 분야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받은 '미국연방 상원 매뉴얼'에는 알고 있던 영단어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으며, 내가 생각하는 뜻으로 해석할 경우, 문맥상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다. 한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여러 글을 읽어보고 미국의 상원 체계와 위원회에 대한 정보나 미국 법령 체계에 대한 정보도 수두룩하게 찾아보아야 했다. 그래서인지 번역을 요청한 10페이지를 번역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기도 했고 한 페이지를 분석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더 오

래 걸렸다. 그래도 모든 번역을 마치고 제출했던 그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다. 또한 미국 변호사 시험도 봐보고 싶었던 생각을 재고하게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예상외로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한 다른 봉사활동과 달리 직접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막상 처음 가본 법원에서의 경험은 이번 학기에 한 경험 중 가장 특별했다. 엄중하게만 진행될 것 같았던 법정은 내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민사 재판에서의 판사는 재판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주었고, 경청해주었다.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와 변호사도 서로를 존중하는 어투를 사용했으며, 판사에게서는 피고의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대하려는 태도가 엿보였다. 전문가라는 이미지로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법조인에 대한 내 생각이 되돌아보게 되었다. 또한 방청을 함으로써 어렵고 지루하게만 생각되었던 법이 현실과 밀접한 연관도 있다고 느껴졌으며, 이전보다는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았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여 추후 더 많은 법정에 방청가지 못했던 것이 몸내 아쉽게 느껴진다.

사실 최종 보고서 제출을 6월 말로 착각하여 계획했던 봉사활동에 비해 못한 것들이 몇몇 있다. 이왕 해보는 거 언론모니터링도 해보고 싶었고, 행정재판도 방청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웠다. 그래서 이 아쉬움을 다음 분기에 진행될 봉사에서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때는 관심가는 분야를 정하여 더 깊게 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김 ○ 린

이번 2024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은 제가 법률연맹에서 세 번째로 참여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봉사활동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에 자원하였습니다. 법률연맹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 역시 저에게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참여한 활동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였는데,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설문조사 활동은 주로 주변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들의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보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결과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설문결과를 분석하면서, 청년들의 법정치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시스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청년들은 정치가 변화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법조인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원의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고, 판결 요지와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꼈지만, 어느덧 세 번째 참여하는 활동이다 보니 점차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각 심급별로 판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하며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심에서의 판단이 2심과 3심에서 어떻게 수정되거나 유지되는지를 보면서, 법적 논리와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판결 요지와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와 법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가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하나하나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조인은 항상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는 현실적인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시민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여 투표에 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약의 구성 및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에 보다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연맹에서의 봉사 활동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사회활동을 통해 저는 법조인의 자질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여 더 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이 ○ 런

2024년 봄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그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끝나버려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다른 일정이 없어서 봉사활동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고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들로 채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역시 의정 모니터링과 법정치의식 설문 조사를 필수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고 분석하면서 이 분이 왜 이런 공약을 세웠는지, 이 공약이 꼭 필요한 공약인가, 임기내에 완성할 수 있는 공약인가 등을 혼자 생각하는 것도 정말 재미있고 국회의원마다의 공약을 나름대로 비교해 보면서 지역구별로 전체적인 공약의 방향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찾아내는 것도 꽤 흥미롭습니다. 물론 그것들에 앞서 의정 모니터링 - 공약 분류 활동의 주 목적인 공약 이행률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 분류에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 의원이 걸리기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넣는 것도 설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여러 사람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생각, 의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와 법원에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의견을 공유하는 것 역시 저의 취향과 잘 맞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판결문을 분석하고 정리하며 용어를 해설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장래희망이 법조인이고 현재 재학 중인 학과도 법과 관련된 학과인 만큼 판결문을 읽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고 또 판결문을 읽는 것 역시 재미있었기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판결문을 접하다 보니 새로운 판결문을 봤을 때 끝까지 읽어나가고 이해하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것을 체감했고 제 나름의 언어로 정리를 하면서 머리에 좀 더 깊게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진행하고 싶은 만큼 정말 만족한 활동이었습니다.

여름학기에 시간이 된다면 봉사활동을 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만큼 다음 학기에 또 진행하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선착순에 밀려서 결국 불발되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름에 기회가 된다면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김 ○ 진

1. 오티 - 한국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법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맹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보가 풍부했습니다. 먼저 연맹의 역사와 설립 목적, 주요 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소비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맹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률 상담 지원, 법률 교육 프로그램 보조, 연구 및 조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각 활동이 법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게 되어 매우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니 앞으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률 소비자연맹의 일원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연맹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2. 법정치의식조사 - 대학생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제언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종합하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률 교육의 중요성과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사법감시배심원단 - 이 활동은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 법률 소비자로서 사법 시스템을 직접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 매우 보람했습니다. 또한, 법률 소비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감시배심원단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번역봉사 - 일본의 형사재판을 위한 재판원 제도와 민법 친족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은 일본의 법률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작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형사재판을 위한 재판원 제도를 번역하면서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원 제도는 일본의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일본의 재판원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사법 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법 친족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가족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조항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편은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와 의무, 재산 관계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번역하면서, 일본의 가족법이 한국의 민법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내의 권리와 의무, 상속 및 재산 분할 등에 대한 규정을 번역하며, 법률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번역 작업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법률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변환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법률 체계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률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번 번역 작업을 통해 일본의 법률 체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법률 번역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법률 번역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간의 법률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 경

본 활동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보다 나의 전공을 실제로 살리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 있었다. 정치학이라는 학문은 결코 특정한 인물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일상 속에서 접하기 쉬운 학문이다. 정치학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본 봉사 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정치학과 결부되는 면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첫 봉사이다보니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내가 시도해본 활동 모두 도움이 되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무래도 법정모니터링일 것이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도 법정을 방문하여 공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관심들이 법정 내의 정의를 더욱 공정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다. 여러 법정 모니터링을 다니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나는 행정 상의 법률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방청을 하다보면 다소 난해해 보이는 상황들에 봉착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럴 때 올바른 판결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였다. 특히 형사 재판을 위주로 방청을 하다 보니 나와 비슷한 또래의 피고인들도 종종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들을 보고 있자니 비단 '법'의 틀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함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공약을 정리하는데, 앞서 방청했던 여러 재판들이 떠오르며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일부 공약들을 꾸준히 내거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이전에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들이 이제는 나에게 크게 와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야기할 온갖 사회문화정치적인 부작용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게 느껴졌다. 법과 정치학은 서로 다른 분야인 듯 하지만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올바른 사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법의 집행이 공정성을 판가름 가능해진다. 봉사 활동을 하며 다소 내가 가져야 할 책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덕분에 매우 유익한 봄 학기를 보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봉사가 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공정한 사회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만질 수 없는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요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본 연맹을 비롯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 또한 그렇다면 내가 참여해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사회'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려 한다. 본 소감문을 끝내는 현재, 앞으로 더 남은 나의 봉사 활동들이 기대되는 동시에 한 권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강 ○ 은

1년 동안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를 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봄 학기 봉사는 다시 1년 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깊이 봉사에 대한 의미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공약을 정리하는 봉사가 필수 활동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리된 공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봉사 활동이었다면 올해는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공약을 발표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을 위해, 국가를 위해 약속한 공약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며 공약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사 활동은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거와 정치에 대한 설문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봉사 활동은 꾸준히 해오는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민사 재판을 주로 리서치하였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관심 있는 주제의 판례가 민사 재판 쪽이

많았는데 특히 페이스북과의 전기통신법 관련 판례는 새로운 주제여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 역시 전문적 내용을 접하게 되어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 깊은 리서치는 일제 징용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판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많고 아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국가적 보상과 개인적 보상의 상관성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판례 리서치를 통해 좀더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국가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 활동도 선거와 함께 관련 활동을 하면서 뜻깊게 보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 한명 한명의 노력과 관심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아무리 작고 큰 힘이 되지 못하더라도 많은 개인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으며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분쟁 속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과 시민 참여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도 그러한 시민들의 관심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년 만에 이루어진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지역과 국가를 위해 공약을 잘 지켜나가는지 다음 학기부터 또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강 ○ 연

2024년 3월 15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봄학기 봉사자로서 활동하며 느낀 것을 작성하고자 한다.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올해 초에 알게 되어 신청하고자 했지만, 2023년 겨울학기 봉사 신청 기간을 이미 놓쳤기에 2024년도 봄학기 봉사 신청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봄학기 봉사활동 신청 후, 본래 대면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오리엔테이션에 봉사자들은 필수 참석이라는 공지를 보고, 부산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석하고자 교통편과 머물 곳을 모두 정해두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기 며칠 전, 안타깝게도 오리엔테이션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메일을 받고선 아쉬운 마음이 가장 컸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은 타지에 사는 분들과 직장인분들을 배려한 결정이었기에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시금 잡았던 거 같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부여 받고는 오티 회신문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나갔다. 읽으면서 봉사활동 체계가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운영 중임을 느꼈다. 또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 법정모니터링 및 배심원단 활동,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비롯해 국내외의 헌법, 법령 등 번역 및 조사활동, 언론모니터링 활동 등이 있어 여러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렇게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번역봉사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학업과 병행하고자 하니 의지가 앞선 것에 비해선 여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봉사활동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다. 어쩔 수 없이 30시간이라도 꼭 채워보자는 생각으로 필수활동인 법정치 설문조사, 제22대 국회의원 공약분류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특히, 공약분류활동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타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의 새로운 흥미로운 공약들을 분석해보면서 각 의원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 및 지역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법정치설문조사는 주변 친구들의 법정치의식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어 각자가 가진 생각과 가치관들이 매우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과 이슈들,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회문제 등에 대해 나와 타인의 사고가 다름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정치

설문조사는 나에게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부산고등법원에 문의하여 재판이 주로 있는 날과 방청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 받았지만, 방문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참여하지 못 했다. 다음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지원하여 방학 기간 동안 반드시 방청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국내외 헌법 및 법령 등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활동으로 기억된다. 우리나라의 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타 국가의 법을 그 나라의 고유한 사회 문화와 정치 환경, 법 형성 배경 등을 고려해 번역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번역을 하기에 앞서 해당 나라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였다. '독일 행정법'과 '스페인 정부법'을 번역하면서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따로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법 관련 언어와 나라의 운영 체계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번역 작업을 끝마쳤다. 첫 번째 봉사활동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미숙한 점이 있었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다.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다음 2024년도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대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컨택의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문의에 응해주시고, 의미있는 피드백을 전달해 주신 운영자분들께 감사하다.

○ 국민대학교 법학부 고 ○ 진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던 작년 봄과 달리 이번 해에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어떠한 진로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노동법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활동 기간에는 이전까지와 달리 막연하게 여러분야의 판례를 고르거나,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쉬워보이는 판례를 선택하는 것 대신에 다소 복잡하더라도 내가 미래에 종사하고 싶은 직종과 관련한 판례들을 골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주로 노동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의 판례를 공부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더 세심하게 분석해보고자 하게되었고, 더 이해하기 쉬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대학 수업에서도 노동법을 수강하였는데, 교수님이 설명해주셨던 판례를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에서 선택하여 분석해보면서 수업에서 이해되지 않았거나 시간상 넘어가야 했던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판례들 중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하였었던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배려의무'에 관한 판례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노동법 교수님께서 해당 판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례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나서 이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초·중·고교와 공휴일 근무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상황을 인정하여 사업주의 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법관은 단순히 그 사건 자체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과, 그 판결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역할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와 관련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공약분류 봉사활동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정당만을 보고 뽑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생각보다 공약이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정당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약분류를 하다보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나중에 이러한 공약이 지켜졌는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여 이러한 공약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국민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권 ○ 안

나의 첫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 법령 번역활동, 의정모니터링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고등학교 동창 및 대학 동기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인상적인 부분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 사법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었다. 언론 매체에서 흔히 보여지는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응답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법적 처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당연한 것이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공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들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특정 1명의 응답자에게 추가 질문을 한 결과, 그 응답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타까움을 느꼈다. 청년들이 사회의 갖가지 이슈에 대해 물음표와 관심을 가져야 개개인의 법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더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령 번역활동의 경우, 독일의 법령을 선택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다. 독일 연방변호사보수법령을 번역하였는데, 독일어는 경우에 따라 각 단어들을 재조합한 경우가 많아서 법령문의 맥락으로 번역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해외 법령문을 접한 게 처음이라서 번역 과정이 힘들기보다는 그 나라의 법률을 알아간다는 점에서 흥미진진했다.

봄학기 필수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가장 흥미로웠다. 그릴싸해 보이는 국회의원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전문가인 나의 입장에서 봐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공약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보다

표심을 얻는 데에 유리한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 당선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속하더라도 현실적인 공약들을 잘 이행하는 국회의원인지,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속하더라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아닌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때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라더라도 국민의 심부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유권자가 되어야겠다는 반성의 의미도 있는 활동인 것 같고 그러한 유권자들이 많아져야 한국의 정치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다.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권 ○ 현

처음으로 법원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재판장이 작았고, 약식형으로 하루에 여러 재판을 보는 것이 새로운 점이였다. 형사, 행정 재판을 보았는데, 형사 재판은 생각보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입건된 사건이 많았고, 행정 재판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서 그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구하는 재판이 많았다. 생각보다 재밌었고, 법조계의 꿈이 더 커지게 된 것 같았다.

꿈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여서 더욱 보람있었다고 생각한다. 법정 모니터링의 결과로 더 나은 재판 환경과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었다면 더욱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임했다.

법과 대학에 재학하면서 법 수업을 많이 듣는데, 그 수업에서 판례들을 많이 보아서 조금 더 익숙한 봉사활동이 될 것 같다 생각하였다. 그런데, 수업에서 배운 판례들은 축약해놓은 것이라 처음으로 전문을 읽어보았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다.

첫 봉사를 할 때는 그래서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제대로 축약이나 요약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봉사를 할수록 당시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고, 축약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판결문들을 공부하고 요약하면서 그리고 사법감시를 하면서 사회 문제들을 더욱 배울 수 있

었다. 법조계 인물이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법 정치 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봉사 활동이었다.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조사를 하였고, 그 답변 내용들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평소에 궁금했던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다. 답변을 보았을 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저출산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답변 했다. 이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어떤 법안이 개정되길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20대 총선 이후 선거 공약들을 분류하는 봉사하였는데 처음 접해본 봉사여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랐지만, 매뉴얼을 읽어보고 고민하면서 봉사를 시작했던 것 같다. 봉사를 하면서 배정받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공약을 했고, 주로 관심있게 펼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번 총선에 기여를 하는 것 같아, 보람됨을 느꼈다. 법률 봉사라 생각하고 정치 관련 봉사는 할 줄 몰랐지만, 재미있고, 보람찼다.

○ 계명대학교 법학과 금 ○ 연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학기 중에 학업과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들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하다는 점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2024년 봄학기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봄학기 활동 중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필수 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국회의원 공약 조사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는 형사사건 2건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 게시판에서 여러 판례를 간단하게 읽어보고 제일 관심이 가는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 판결이 비공개로 되어있는 사건에 대해 판결문 제공신청도 해봤는데, 이렇게 1심부터 3심까지 자세히 읽어본 적이 처음이라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항상 대법원 판례 요점만 배워서 몰랐는데 직접 판결문을 읽어보니 쟁점 파악과 그렇게 판단한 근거 등을 바로 찾아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천천히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내니 정리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조사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녹음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선생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기 위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를 시킨 상황에서 해당 녹음기의 녹음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냐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만 알고 있어서 피해 학부모의 입장에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니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사건에 대해 요약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왜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판결 전문을 꼼꼼하게 읽고 판단 근거들을 정리해 보니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며 법리 해석을 꼼꼼하고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 있던 활동은 번역 봉사였습니다. 저는 미국 하원 의사규칙을 번역하였는데 헌법, 형법, 민법 등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들어본 법이 아닌 하원 의사규칙이라는 약간 낯설 수 있는 법을 해석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영어 공부를 하던 중이라 자신 있게 신청하였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단어도 많고 검색을 해도 단어장에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의미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 낯선 내용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때 같은 단어라도 어느 조문에 쓰였는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고 번역을 할 때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맞게 번역을 하면서 법안을 만들고 표결하고 통과시키는 과정 등 중요한 절차와 관련된 규칙을 규율하는

내용을 자연스레 알 수 있었습니다.

필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입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질문이 너무 어렵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었다 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정치나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문, 사례나 판례 등 정말 '법'이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정치와 입법 또한 법과 밀접적인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해본 봉사활동이라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도 느꼈지만, 법학이라는 전공을 공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화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던 활동들이라 유익하고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며 견문을 넓혀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 ○ 영

2024년 1학기 동안 학기 병행과 함께한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법률자원봉사활동은, 법조인 희망 진로를 위해 더욱 강렬한 동기부여를 얻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4년 6월⁷⁾ 지의 봉사 기간 동안, 제 22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와 독일 내부자고발법 번역 활동, 법정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법과 정치, 사회의 동태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어독문과 학생으로서 독일 내부자고발법을 번역하며, 어렵고 생소한 낯선 독일 법률 용어들을 직접 찾아보며 힘든 과정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전공과 복수전공(이화여자대학교 내의 법학 연계전공과목)을 융합시키며 진정한 전공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들으며, 독일 민법이 우리나라 민법 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배웠는데, 우리나라 공법 관련 강의 또한 학교에서 추후 수강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법과 헌법 수강신청에 반드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내부고발자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데 중여한 역할을 함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법 질서 준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투명성은 부패 척결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방지도 일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내부고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내부고발자의 사익 침해 방지'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입법 개선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3년 7월 2일에 발효된 독일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단일 법률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에만 치중하여 일원화된 규범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번역봉사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내부고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입법이 이루어져 역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입법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 할 유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분명 내부고발이 공익을 수호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법정 모니터링 역시 판사님과 검사님, 변호사님들을 직접 보며 재판의 흐름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역경에 처하지 않는 이상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판장이 마치 검사와 변호사의 불꽃같은 토론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드러마나 각종 영상매체에서 다뤄지는 토론장과 같은 흥미진진한 재판장의 모습만 보았기에, 실제로도 이러한 기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장은 다른 의미로 흥미로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실감이나 토론을 벌이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증인이 감정적으로 울분을 토로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의재판 경험과 같이 토론과 반박, 재반박의 향연이 아닌, 서류증명과 단답식의 발

언, 그리고 판사님의 재판진행이 거의 대부분의 과정임을 알게 되어, 말하기에 비해 작문실력이 법조인의 자질로서 더욱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 ○ 수

올해 2024년 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공부를 하다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관련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단순한 호기심에 방청을 목적으로 한 법원 방문은 종종 있었지만 계획을 가지고 재판을 평가하며, 사건의 쟁점을 알고 듣는 재판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분위기도 달랐으며 정말 갈망하는 자리인 검사석을 더욱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법정지의식 조사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많지 않아 여러 명에게 수행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치적 의견이 되었으며, 어떤 법률이 어떤 수행방식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지도 알게 되는 봉사였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봉사이니만큼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하고 흐름을 찾으려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형사 재판 같은 경우 여러 회의 공판이 있고, 처음부터 그 공판을 지켜보지 않았다면 그 흐름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만, 피고의 신분 확인을 마치고 진행되는 심문과 증거 제출 피고의 증언,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판결을 한다면 판결의 요지 등으로 이전 공판에서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이전의 공판에서는 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석에 있는 검사 법대에 앉아있는 재판관 그 앞에 앉아있는 법원 공무원 등 단순히 일반인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많은 고생이 들어가 피고, 원고 등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며 수천 ~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읽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극히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에 해당하는 검사와 피고와 피고의 변호사, 그리고 중간에 있어 양자를 판단하는 판사까지, 우스갯소리로 이 중 피고를 제외하고 하나가 되자는 마음으로 출발한 공부와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여름학기에는 불학기에 하지 못한 판결문 리서치까지 수행하여 더욱 더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 연

작년 봉사활동을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심 있는 분야로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워서 이번 학기에도 다시 신청했다. 저번년도에 이어 이번학기까지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했는데, 다른 대외활동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법률봉사는 한 줄기의 빛이었다. 그래서 불 학기 공고가 뜨자마자 바로 신청했고, 작년과 동일한 의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을 신청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쳤다.

법률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먼저, 법률봉사는 그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는 소중한 활동임을 깨달았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률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법률봉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인간적인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이다. 법률은 누구에게나 친숙하지 않은 영역이고, 법률 언어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장 법과 정치 과목을 공부한 나조차도 판결문을 읽을 때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재판의 전체 과정이기 때문에 대중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판결문 해석하는 활동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법률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시야가 넓어졌고, 다양한 판례 및 여러 공약들을 보며 사람들의 다양성과 각자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진 것 같다. 이는 내가

더 나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봉사를 통해 실무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쌓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다.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률봉사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무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낀다.

특히, 국회의원 공약을 조사하는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과 접목된 공약들을 직접 접하면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내가 더 나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공약을 무의식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이러한 범주의 공약들이 왜 많이 나오는지, 이러한 공약은 왜 많은 지지를 얻는지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정모니터링이 이러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도록 도움닫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법률봉사를 통해 작년보다 한 층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벽찰 수 있지만 그만큼 가치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률봉사에 참여해 사회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내 소중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항상 애써주시는 법률봉사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 ○ 비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 법학도로서 리걸 마인드를 마음에 넣고 공부했지만, 학과에서의 공부는 논리를 알려줄 뿐 경험을 전수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싶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불학기 봉사활동은 이런 제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학우님들과 함께 사법 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함께하고, 법·의식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기존에 제 일상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했던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민주 시민의 한 명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주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매일 언론 기사를 들여다보며 스스로 관심을 기울였다 생각했지만,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언론사별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평가하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명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함양해야 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불학기 봉사활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방법 내지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 당위를 제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봉사활동이었으나, 활동에서의 보람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교훈을 마음에 아로새기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더불어 사법 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 재판장에 들어서며 실제 법조인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공개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개적으로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앞으로도 재판장을 방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점검하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의 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언론, 사법, 정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불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활동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하면서 행운을 빌어주시고,

활동을 지도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김 ○ 경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곳이었는데, 법조인을 진로를 두고 있는 만큼 법률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 한 활동들은 주로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판결문 리서치, 의정모니터링 등을 했었다.

봉사활동 중 가장 기대하고 조금 두렵기도 했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다. 두 활동 모두 직접 법원에 가서 방청하고 보고서를 쓰는 활동이었는데, 이 활동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방청을 할 때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법원에 가서 '오늘의 재판' 안내문을 보고 해당 시간과 법정 장소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면 된다고 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보통 재판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이와는 달리 실제 재판은 5분~10분 내외로 금방 끝나고 여러 개의 사건들을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짧지만 그럼에도 재판 시 지켜야 할 원칙들, 판사의 피고인 신변 확인이나 최후의 변론 등을 실제로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순히 수업시간이나 책으로만 알고 있던 관련 지식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은 활동이었다. 또한, 재판 중 변호인 측이 위헌재판심사제청신청을 제기했는데, 헌법 강의를 들을 때 배웠던 부분이 실제 재판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신기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법정모니터링 외에도 이번 학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던 것 같다. 대법원 판결문들을 선택하고 관련 판결과 연결된 1심, 2심 판결문까지 조사한 뒤 보고서 쓰는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용어도 어렵고 길기도 한 판결문을 읽는 것이 조금 벅차기도 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니 점점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져 성취감이 가장 컸던 활동이기도 했던 것 같다. 또한, 이번 학기 민사절차법과 행정법 수업을 같이 듣는데, 두 과목 모두 판례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후에 판결문 리서치를 한 덕에 수업을 이해하기 쉬웠던 부분도 있었고 반대로 수업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상기하며 판결문 리서치를 수월하게 한 부분도 있어서 같이 시너지를 얻기 좋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다. 특히, 부당해고구제심판 판결문 리서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후에 법조인이 된다면 노동쪽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노동 관련 판결문을 분석하고 정리할 때 좀 더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 외에도 민사 행정 등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판결문 리서치를 하려고 했는데 할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하고 나면 많은 공부가 되고 성취감도 많아서 다음에도 봉사활동을 한다면 꼭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정모니터링의 경우 공약 분류 활동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당선인들의 공약이 많아서 신기했던 것 같다. 수원시를 배례현 당선인과 충청남도 아산시갑 복기왕 당선인의 공약을 분류했었다. 배례현 당선인의 경우 수원시의 지역발전에도 좀 더 초점을 둔 공약을, 복기왕 당선인의 경우 특히 어르신과 같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시설에 초점을 많이 두어 공약을 내세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당선인 모두 민사, 정당인데 지역별로 공약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들어 재밌게 분류했던 것 같다.

학교 병행이고 전공을 많이 듣고 있는 이번 학기 특성상 봉사활동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법 계열 활동을 구체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던 점이 많았던 것 같다. 특히, 법정모니터링은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직접 볼 수 있어서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뜻 깊었다.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역시 학부 생활하면서 배웠던 개념들을 상기하면서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 방학 때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 민 서

2024년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에 처음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들 중 제가 참여한 봉사활동으로는 사법배심원단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법정시설문조사, 법정모니터링, 22대 국회의원 공약분석입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방청하는 것이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하고, 본 법원 법정 안으로 출입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굉장히 웅장하였고, 법정 내 분위기는 상당히 엄숙하였습니다. 모니터링한 본 재판은 임의수사원칙을 위반하여 내사하는 등 위법수사에 기초하여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 기소마저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악법 규정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사법정의를 위협이 가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날 방청은 판사가 변경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불출석한 날이라,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정 방청 뒤에 빠르게 뛰는 심장소리에 열의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론에 치우친 법학에 치중했던 터라 진로에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것이 실무라는 경험을 해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교대와 같은 3호선이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방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결문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사실 법학도에게 다소 학부에서 제출을 요하는 과제와 크게 다르진 않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쟁점 분석과 같은 사항은 법학에서는 습관과도 같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대리인, 판사들의 이력을 찾아 기재하고, 소송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소송외적인 부분을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재판을 진행한 법관이 어떠한 길을 걷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법관은 양심에 따라야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후에 본 재판들이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법률저널에서는 이를 중요한 판례로 보았는지 등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한 활동은 이번학기 필수활동이었던 법정시설문조사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의 의견을 모아 수렴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판단되어, 실례를 무릅쓰고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질문들이 다소 정치적으로 친한 친구들에 한해도함 16인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나니 역시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대학교, 그리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20대 초중반 남녀는 전반적으로 상호유사한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은 16명 모두 동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국가안보, 안전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는 고유의 정치관으로 나누었지만,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입법 및 정책의 방향성은 동일하였습니다. 법정시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일 연령대의 집단이 공유하는 상호유사한 법정치의식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번째로 진행한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행스럽게도 동국대학교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터라, 수업이 끝나고 자주 방문하여 법정을 방청하였습니다. 사법배심원단모니터링하고는 달리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이라, 시간 제한 없이 듣고 싶은 만큼 법정에서 체류하며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의미있었습니다. 방청한 16개 재판 중 기억에 남는 재판들이 2-3개 정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재판으로, 선고심 전 마지막 공판이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각자 개인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서로의 범죄사실은 목격한 적도 없다는 등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감싸주기 식의 진술을 거듭했습니다. 동일한 범죄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 2인에게 서로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기억의 비율"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검사가 다소 강하게 유도신문을 하였습니다. 최후변론 때는 피고인 모두 눈물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 재판 자체가 드라마에 나올법한 통상적인 내용이라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방청한 재판들(민사재판 포함)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판결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나 절차참여자 중 누구 하나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

나 한 재판이 또 한 번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민사재판으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다투었습니다. 본 재판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이었고, 저에게는 증인신문을 처음 방청한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께서는 증인신문 당시 지방에 거주 중인 증인에게 “만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진술거부권과 위증처벌을 고지하시고는 증인의 선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측의 변호인은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부적절한 질문 끝에 판사께서 신문을 중단시켰습니다. 증인신문을 처음 방청하면서 재판실무의 또 다른 면을 엿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2대 국회의원 공약분석을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령향안창녕 국민의힘 박상용 의원과 경기도 김포시를 박상혁 의원의 공약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재선인 박상혁 의원의 경우 김포시가 발전하는데 큰 힘을 쏟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사법시스템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제게 또 다른 동기를 불어일으켰습니다. 4년 동안 법학 이론만을 배우면서 법조인을 꿈꾸는 것에 회의감이 들 때가 다소 있었으나,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실무의 부분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 엄청난 열의를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 ○ 정

지난 두 번의 봉사활동에 이어서, 이번 2024년도 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학기에도 판결문 리서치, 의정모니터링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35시간 봉사하였습니다.

판례분석은 대법원사이트에서 (중요)나 (이슈) 표시가 있는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재판과 형사재판, 민사재판 모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법률학회에서 진행했던 판례분석은 오로지 대법원 판례만을 살펴보았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양식에 따라 1심, 2심, 3심 각각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그리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 재판에서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에 민사나 형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 어렵지 않았지만 행정재판 판례를 살펴본 적은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계기로 행정재판의 절차나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에 학부에서 행정법을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의정모니터링 봉사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대표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대표자로서 어떠한 공약을 세웠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임종득 의원(경상북도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과 임호선 의원(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에 대한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공약을 펼쳤습니다. 추후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번 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사항을 살펴볼 것이 기대됩니다.

또한 법정책의식조사를 하면서, 정치법률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정치적 시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경험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과공부와 기타활동으로 바빴지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어느 공간에서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이 뜻 깊었던 만큼, 2024년도 여름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판결문리서치와 의정모니터링에 더하여, 해외법제를 번역하는 활동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 일반 김 ○ 현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마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SAT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재판 모니터링은 큰 의미가 있었다. 저작권법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의 엄중함을 체감하면서 법률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즈음하여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세대의 법적 및 정치적 의식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으로 새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의 조은희 의원과 충북 충주시의 이종배 의원의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작성한 2024년 3월 셋째 주 대한민국 10대 일간지의 사설 분석 보고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언론의 역할과 그 영향력을 직접 체감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가을학기과 겨울학기에 이어 이번 봄학기 봉사까지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활동 덕분이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음에 큰 뿌듯함을 느끼며, 단체를 통해 배운 다양한 경험들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꾸준히 상기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개인적인 역량을 길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배움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정비하고 진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홍익대학교 법학부 김 ○

2023년 겨울학기 이후로 두 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학기에는 필수 활동인 법정치의식조사와 선택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 총 2가지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주요 판결을 1심부터 모두 읽고,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활동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보험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피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자해 또는 자살에 관하여서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만, 시행령으로 그 예외를 들며 의학적으로 그 자해 또는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주된 쟁점이 위의 예외규정 적용 여부였으나, 그 판단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짧은 시행법규의 해석을 두고 3심까지 진행될 정도로 규정의 문장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판결문을 분석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제가 직접 사건을 선택하고 1심부터 3심까지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활동이라서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막판에 몰아서 봉사를 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저번 학기 활동에 이어 약 반년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정말 보람칩니다.

○ 중앙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김 ○ 범

2024학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분야는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처음에는 인정받는 시간 대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판결문을 하나씩 정독하고 정리해가면서 판결문을 읽는 요령과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소한 법률용어나 판결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만의 방법으로 요약 및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를 찾아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통해 점점 리서치문 작성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저에게 특히 기억나는 판결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대법원 2020다244672 판결이었습니다. 처음 읽은 판결문이기도 해서 생소했지만, 낯선 용어들을 정리해 나가고 관련 기사와 뉴스를 찾아보면서 점차 흥미가 생겼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문이 다루고 있는 저작권법은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저는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분리된다는 사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작사자가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는 사실,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음악을 다루는 경우와 문언에 써 있는 권리의 내용에 다소 이질감이 느껴져 흥미로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는 법해석방법론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었습니다. 법해석방법론에서 보통 문언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법의 적용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평소 법해석방법론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읽었던 논문들과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판결문상 다양한 관점을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법 규정의 법문이 다른 해석기준보다 중요한 해석기준이라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석의 목표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보다 문리해석이 우위에 있다는 점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판례의 경우 문언적 해석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도 비슷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원 작곡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의 차원에서의 보호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판례는 대법원 2021므14258의 이혼청구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억에 남는 법해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은 상대방 배우자의 의지였습니.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과 관련된 의사를 인정하려면 그 사람이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에 거쳐 드러나는 언행이나 태도를 종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였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혼인유지에 협조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추론하면서 읽었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사회적 및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까지 반영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봄학기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봉사의 일환으로 판결문을 접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후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그때는 제가 생각만 해두고 다루지는 못한 판결문에 대한 판결문리서치와 더불어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법률노래작곡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때 법률노래작곡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열리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추후 9월에 기회가 닿는다면 다양한 활동을 더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철학과 김 ○ 하

법률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활동을 많이 접했던 것 같다. 특히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앞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단 꿈을 꾸면서 막상 법원에 가볼 일이 없어서 처음 갔던 경험이 앞으로도 기억

에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냥 법원을 바라만 보는데도 엄숙한 느낌 그리고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곳에서 지나다닌 수많은 법조인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다. 처음 법정에 들어가서 실제 법정의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내가 출석을 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뿌듯하게 느껴졌다. 그 날 이후 법공부에 대한 더 자신감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가 맞냐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실무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모였을 때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의 방향성 그리고 법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느낌이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활동을 하였을 때, 판결문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정말 관심있는 법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행정법에 관련된 판례들을 찾아보고 이에 대해 정리하면서 실제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을 복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나아가 새로운 판례들을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대입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뿌듯했다. 판결문리서치활동은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 느낀 점이 있는데, 내가 정리하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과 그리고 나의 정리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였다. 실제로 법공부를 하면서 판례를 보게 되면 용어의 세세한 차이로 인해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되면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들 중 하나가 판례에서는 그런 세세한 용어의 차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용어 하나의 차이로 결과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법이다. 따라서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게 되면 평소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김 ○ 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봄학기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쳤다. 나의 첫 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는데,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유일한 활동이었고, 또 재판 방청인 처음인 나로서는 매우 신선한 기억으로 남았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감시하기 위하여 갔으니 가벼운 마음보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지닌 상태로 방청을 했던 것 같다. 그 이후로도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세 번을 더 했는데, 형사사건의 모니터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선고심이기에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가장 즐겁게 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전공으로 법과목을 배우는 만큼, 전공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었고, 내가 한 판결문 리서치 보고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리서치 과정에서 가장 애먹었던 부분은 판결문 선정이었는데, 한 번은 관련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했다가 반려당하여 판결문을 다시 선정하기도 했다. 내가 선정한 판결문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가장 오래 걸렸지만 또 얻어가는 것이 가장 많은 판결문이었다.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이 매우 흥미로웠다.

봄학기 필수 활동 중 하나였던 법정치석조사의 경우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기위해 노력하였다.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청년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았는데, 앞으로 사회를 주도해갈 인물들은 결국 현재의 청년들이니 법정치석식이 고취되어 나아가길 바란다.

제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경우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활동이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생각보다 매우 세세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내의 각 동별로 해당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공약들이 매우 많았다.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모두 지켜질지 앞으로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켜보고 싶다.

처음 해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내가 새로운 시각

을 가지게 해주었다. 봉사활동이 지니는 기능과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꾸준히 봉사자로 지원할 생각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 학기 봉사는 더 다양한 활동을 신청하여 봉사할 생각이다.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김 ○ 하

저는 이번 학기에 미국연방 상원 매뉴얼 번역봉사, 22대 국회의원 공약 정리(3인), 청년·대학생 법정치 설문조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판결문 리서치(대법원 2021도4265)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23년 겨울학기 봉사를 하면서 이 봉사활동을 학기 중에도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에 24년도 봄학기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연방 상원 매뉴얼에서 상조와 기념품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 상조와 기념품 부분도 생소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원에 관한 법을 분석한다는 것도 생소했습니다. 단어들이 제가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연결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 상원과 관련된 자료도 보면서 새로운 정보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에 대해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지 않았지만, 다음 학기에 번역 봉사를 한다면 우리나라 법과 외국법을 비교하면서 번역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겨울학기 때 공약점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 공약 조사를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봄학기 봉사활동 시기에 딱 22대 총선이 있었고, 당선인에 대한 공약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재미있게 한 활동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국회의원 한 분씩 총 두 분을 배정해주셨는데 저는 제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조사도 해보고 싶어서 제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총 세 분의 공약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공약 점검 때 조사해보니 거의 절반은 이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약속의 무게가 이리도 가벼운 것인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국회의원분들은 공약이 거의 100개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공약을 보면서 작년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약이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국회의원분들께서 약속의 무게를 진중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공약 조사를 하면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년·대학생 법정치 설문조사 질문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직접 찾아보지 않는다면 알기 힘든 내용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또래 친구들이 이 설문조사에 응한다면 대부분은 어려워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요청했을 때 사건들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에 정치색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배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분을 미리 배웠더라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정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법적 판단을 할 때는 법이 왜 입법되었는지,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 법조의 입법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이 생각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떤 법리를 적용하든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해석에 따라 다른 논리를 펼칠 수도 있기에 법의 목적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유추 해석하지 않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저는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건을 만난다면 어떻게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변호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이 재판장에서는 작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공부와 함께 병행해서 조금 바빴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여름 학기에도 또 해서 그때는 판결문들을 좀 더 많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 김 ○ 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전문적인 법 지식이 아닌 일반인, 대학생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으로 제가 참여한 활동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분석,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로 3가지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활동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입니다. 이 활동은 청년대학생의 법정치의식을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가능한 많은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대부분 응답을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꽤 애를 먹었지만 국가사회 발전에 활용하고자 한다는 안내를 보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주변 지인들을 설득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활동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분석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조사하는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기 전 공약들을 분석, 분류하는 활동입니다. 평소 저는 선거투표를 할 때 후보자들의 정치 경력과 도덕성을 위주로 고려하는 편이었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당선자들의 공약 그 자체와 이행률에 약간의 불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권자임에도 그저 투표 전 집으로 오는 우편물을 훑어보는 정도로만 간략히 읽는 것으로 끝났었는데, 이 활동 덕분에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두 분의 공약을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 아닌 공약 제시가 아닌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공약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각 지역구를 방문 조사하여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또는 지역민들을 위해 교육, 문화체육, 환경 등 어떤 복지가 필요할지의 고민의 흔적이 꽤 느껴져서 놀랐습니다. 앞으로 후보자와 국민 사이의 약속인 공약을 상세하게 읽어본 후 투표하는 유권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직접 판결문을 검색하여 사실관계 정리, 쟁점 정리, 사건 관련 기사 검색과 검토, 소송대리인의 과거판결기록 등을 리서치하는 활동입니다. 총 4개의 판결문을 리서치 하였는데, 평소 형사사건에 관심이 많아 4개 중 3개는 형사사건을 리서치 하였습니다. 리서치한 사건들은 강간상해, 정치자금법위반, 마약·퇴거불응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건은 강간상해 사건이었는데, 조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피해자는 일부 청력 상실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3심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두 번째로 리서치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 가장 힘들고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이미 리서치를 해봤다는 자신감으로 신청하였지만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정치자금법사건이라 워낙 사람들도 많아 쟁점정리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만큼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담당자님께 확인까지 받았을 때는 이번 봄학기 활동 중 가장 뿌듯한 경험이었습니

다. 세 번째로 리서치한 판결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 사건입니다. 이번 활동을 이후로 마약사범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마약 범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대부분은 마약의 위험성에 무지하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한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회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마약 범죄를 어떻게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직접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판결문 자체도 생소한데 용어도 어려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활동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

다. 모르는 법률용어를 찾아보며 작은 양이지만 법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고, 실제 사례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몰랐던 개념을 완벽히 알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를 하나하나 해결 수록 처음에는 몰랐던 용어가 나중에는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또한 법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법원의 태도 또한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 ○ 수

법률 소비자 연맹을 통해 2024년 1학기에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주가 되는 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였다.

먼저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며 재판이 제대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각 검사, 판사, 변호인, 법원의 경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었다. 법학과이지만 법원에 가볼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 법원에 가서 당일 어떠한 재판들이 이루어지는지 법원 게시판판을 통해 확인한 뒤, 방청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실제로 방청을 하다 보니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판사는 항상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외국인이면 통역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원활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재판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검사나 변호인 역시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판을 방청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강의시간에 책으로만 배웠던 형사소송의 절차가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통해 실무는 이렇구나 하는 점들을 배웠으며, 첫 번째 법정모니터링에서는 낯선 다양한 상황들에 적응하기 바빴다면 두 번째 이후 법정모니터링에서는 공통된 형사소송의 절차들이 보이고, 변호인과 검사의 변론의 쟁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등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판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쟁점을 요약하고 법률 용어를 풀이하는 등 읽기 쉬운 판결문 분석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사실 처음에 판결문리서치를 했을 때는 법을 전공하고는 있지만 수많은 법률용어들과 뚜렷하지 않은 쟁점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당사자 정보 등에 어려움을 느꼈었다. 하지만 여러 번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다보니 공통되는 법률용어들이 보이고, 판결문의 구성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쟁점들도 첫 번째보다는 다소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 판결문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판결문을 읽기 쉽게 변화한 것 같다. 판례들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공부도 되기도 했다. 첫 번째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활동은 행정구제법을 수강하고 있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을 판례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면서 다소 어려웠던 국가배상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두 가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문리서치 역시 형법각론을 수강중인 나에게 단순히 교과서만이 아니라 판례 속의 사례를 통해 죄명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이 봉사들이 편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법원도 시간을 내서 몇 번이나 다녀와야 했고,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사를 마무리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봉사는 나에게 있어서 지식적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어 나중엔까지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학기에 이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

○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김 ○ 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은 벌써 햇수로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도 마지막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다양한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불학기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불학기에는 지난 겨울학기의 봉사활동 때와 같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학기 때에는 국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연장선인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번 불학기 때에는 사법감시 배심원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원은 언제 가도 정말 웅장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인 것 같은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2022년의 겨울학기 이후 오랜만에 다시 교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방문은 법조인으로서의 자의 꿈에 있어 정말 의미있는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 방문 시에도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루 빨리 법률 공부를 심도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불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그리고 햇수로 3년째 참여하고 있는 미국 법률 번역 봉사활동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불학기에는 미국 각주의 헌법이 아닌 미국연방 상원매뉴얼을 번역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새로웠습니다. 다양한 국회의 직무에 대해서도 찾아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의 다양한 직무,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미국의 상원 제도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비록 학교에서는 마지막 학기이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음 여름학기 봉사활동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평소 해왔던 활동들이 아닌 언론 모니터링이나 다른 새로운 활동들에도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성심성의껏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김 ○ 원

안녕하세요, 법률연맹에서 불학기 봉사자로 활동을 마친 고려대학교 김○원입니다. 법률연맹을 통해 법과 우리 사회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나 법률 다루는 활동이다 보니 머리를 싸맸던 시간들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제퍼슨 매뉴얼을 번역하는 과정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국제와 환경 분야의 법조인을 꿈꾸는 저로서는 이러한 역사적이고 법률적인 문서를 다루는 것이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귀중한 학습 기회였습니다. 번역 작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의미 전달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문서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어로 정확히 옮기는 과정에서 법률적 사고력과 세심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절차와 같은 중요한 법적 절차를 번역하면서 미국의 법적 시스템과 역사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번역 작업을 넘어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국제법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법률 문서를 다루면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법률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번역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제가 국제 및 환경법 분야에서 활동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법률의 복잡성과 이를 국제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술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엔 진행한 대법원 2021두37373 판결에 대한 리서치 활동 역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한 것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엄격성과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법이 환경 보호와 경제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령의 해석이 국민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개발행위 허가 거부 사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를 조사하며, 해당 판례를 통해 행정청의 재량권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환경오염

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역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정청의 재량적 결정을 존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환경과 법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연맹에서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제 진로를 구체화해보고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국제와 환경 분야에서 법률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김 ○ 진

중학교 시절, 일련의 경험을 계기로 법조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법조인이라는 장래희망을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회와 같은 법 관련 활동들에 참여하고, 철학 고전 독서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여한 활동들은 그 과정과 결과가 추상적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조금 더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법률소비자 연맹의 2024년 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은 현실과 직접 맞아맞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법률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와 동시에 저의 여러 역량을 점검하고 기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본 활동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에서 진행된 저작권(미국 수능 SAT)법 위반 사건을 모니터링을 하며, 당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법률연맹 측에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법정 내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고 재판장에 들어갔으며, 사법감시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설문지의 기준점에 부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법감시 배심원단으로 활동하는 동안 법관(판사)들이 항상 재판 당사자들에게 경어체를 사용하고 법률용어를 잘 모르거나 발언을 어려워하는 당사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등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키며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는 모습을 보며, 이와 같은 법관의 태도가 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재판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법정 내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법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건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추구하여야 할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 굉장히 뜻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국제영역 봉사활동인 외국 법률 번역활동이었습니다. 본 활동에서 '미국 상원 매 뉴얼' 원문을 번역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법령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한 장을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조문 정리체계를 먼저 공부하고 미국 법 조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정리해놓는 논문 자료 등을 찾아 읽어보며 미국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번역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번역봉사를 통해 각 나라의 법률들은 정의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보인다는 점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고 참고하는 것은 더 넓은

시각으로 진정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차이를 인정하며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고수해야 할 것은 유지하는 것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언어적 재능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의 법률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하며 저작권(미국 수능 SAT)법 위반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작권법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었고, 번역봉사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만 아니라 본 활동은 법률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뜻 깊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닿을 수 있는 때까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더 의미 있고 보람찬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뜻 깊은 봉사활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도 ○ 호

봉사를 신청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자 신청한 것이었는데, 취업준비와 병행하고, 면접도 자주 가야하다 보니 사실 상 판결문리서치 활동만 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법원도 직접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법률적 경험을 쌓아볼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만 판결문 리서치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주요 이슈들을 다룬 내용을 보면서 이슈를 숙지 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시각과 괴리될 수도 있는 법률적 해석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세월호 관련 판례였다. '구하라 법'이라는 이슈로 사람들에게 유명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사건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사건이었다. 법적인 내용으로만 살펴보자면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 않는 않았다. 하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감성적인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시각과 법적인 시각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외에도 일반 국민의 비난을 받은 판결이 법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현재 법조계와 국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말은 쉽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괴리를 줄이는 것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법정치의식통계나 의정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선거공보를 자세하게 읽어봤던 것 같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항상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선거공보를 찬찬히 읽어보니 의외로 현실적인 공약들도 많이 보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해 보이는 공약도 많았으며,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법정치의식통계를 통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의 법과 정치적인 의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재미있었던 것은 여전히 지역적인 정치의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정치 색깔이 분명한 것 같았다. 다만 그럼에도 젊은 층들은 다소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과 정치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개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이유 불문하고 뿌듯하다. 많은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소 예전 판결문부터 최근 판결문까지 읽어보면서 판결문 자체도 점점 읽기 쉽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매우 긍정적인 면모라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활동들에 사람들이 자주 노출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법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류 ○ 정

대학교에서 여러 법 과목을 수강하며 법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법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자 작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도 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님들께서 봉사 활동 결과물에 대해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주신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의정 모니터링 및 번역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 정치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명당 봉사활동이 15분 인정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일지라도 같은 주제의 법과 정치에 대해 무척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최소한 의원 2명을 선정하여 양식에 맞춰 각 의원이 자신이 내세운 선거 공약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학기처럼 각 공약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단순히 분류하는 작업이라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의원 2명을 평가하였는데, 각각 5시간,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국민으로서 각 국회의원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다루어진 이슈 중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제퍼슨 매뉴얼 및 미국 연방 상원 매뉴얼을 배정받았습니다. 활동별로 번역 분량이 상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상당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어 실력에 자신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번역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영문 소설 및 뉴스와 괴리감이 느껴지는 법조문 특유의 딱딱한 문체, 가독성이 떨어지는 긴 문장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혼합되어 번역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조문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되는지, 문장들이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고 기능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은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법은 항상 제게 생소하고,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봉사 활동을 통해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숙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과 정치라는 두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에 도전하여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을 얻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결과물에 항상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담당자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문 ○ 윤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여러 법학 관련된 대외활동을 알 아보던 중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봉사 활동해보면서 수많은 활동과 해당 활동들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이나 법정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또는 번역 봉사, 사법 감시배심원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음으로써 실제 국회의원들이 내건 공약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어떤 공약들로 당선이 되었는지, 초선과 재선의 국회의원들의 선거공보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선 의원들의 경우, 실제 임기 당시의 활동들을 알리며 재선을 하게 된다면에 대한 공약들을 내거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잘 알고 있구나 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특별구역들은 재선에 나아가서 3선도 하는데, 그 만큼 그 지역의 토박이 거나 믿음직한 활동 결과를 보여준 부분이라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두 번째로 해보다보니 처음보다는 익숙하게 느껴서 좋았습니다. 물론 판례를 처음 선정하는 것부터, 어떤 쟁점이나 사안이 중요할까라는 고민과 그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좋은 판례를 선정하려는

고려도 있었습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도가 높은 내용을 판결문 리서치의 주 판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예전보다 좀 더 읽기 쉽게 판례를 적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아직도 좀 더 구체적인 판결 요지나 판시사항이 없는 판례들도 있어서 판결 요지가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만 읽을 게 아니라, 해당 대법원 판례의 원심들을 읽는 게 훨씬 판례를 이해하는 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법원 판례들을 읽고 나서 모호했던 부분들이 1심과 2심 판례를 읽으면서 더 정확하게 이해되고 서로 유기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고 판단되는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담은 활동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법학적 사고력과 시선과 생각을 만들 계기를 만들어 주어 너무나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 일반 민 ○ 회

봄학기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던 여러 활동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읽었던 징계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은 한 고등학생의 부모님이 원고가 되어, 중학교의 학교장을 피고로 제기한 민사사건이었다. 원고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고등학생이 중학교에서 받았던 징계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학생은 수업시간 중 화장실을 간다는 허락을 받고 다녀오던 중, 교실 앞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복도를 지나가던 선생님에게 발각되었다. 선생님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학생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교무실로 가게 되었다. 교무실에서도 학생은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향한 비난의 말까지 했다. 이에 학교는 학생에게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과 사과편지 작성 1시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학생의 학부모는 이 징계처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지만 징계처분은 이루어졌고,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의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소송이 각하되었고, 2심에서는 피고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학생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였고, 징계처분의 내용이 과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징계처분과 관련된 자료들이 학교 측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들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규정과 협약의 '심성교육'에 '사과편지 작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물론, 교사가 학생에 대한 처벌을 내릴 때 법령과 학칙의 엄격한 준수는 필요하다. 교사의 임의적인 처벌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한 처분을 학칙으로서 사전에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의 일환으로서 유연한 처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과편지 작성 1시간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학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님에도, 그 학생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판결들이 반복되면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고, 학생들은 잘못된 윤리의식을 체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에 지나치게 억압되던 학생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정한 규율과 통제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판결문들을 읽어보면서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지만 동시에 멀리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주로 법적 비난과 윤리적 비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을 완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비난과 법적 비난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리걸 마인드'는 법을 공부한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익숙한 개념이다.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잃고 판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유도 이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성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특히 형법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일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이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감정적인 본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성이 강조되면서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해지고, 형벌의 목적으로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교화가 부각되면서 응보주의에 대한 고려는 약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감정은 소외되어 버렸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면 사람들의 법에 대한 신뢰는 더욱 약해질 것이다.

최근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사적 제재가 만연하는 것을 보면, 법적 안정성을 우위에 두었을 때 정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정의를 우위에 두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포기했을 때 오는 사회적 혼란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고민하게 된다. 법과 사람들의 법에 대한 생각의 괴리가 크다면 과연 법이 효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괴리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국 입법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그 괴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다.

○ 영남대학교 화공과 졸업 박 ○ 태

저의 5번째 학기 봉사활동 이자 아마 마지막 학기 봉사활동이 오늘 언론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 연맹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설문조사였습니다. 지인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줄 수 있는 이들을 찾았고 설문조사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총 6분의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의정보자터링이었습니다. 제가 희망한 총 2분의 국회의원 분들의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약을 분류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심도있게 관찰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사실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총 7개 경제지의 사실을 분석하고 각 주제별로 사실을 비교 분석 하였고 또 마지막에는 각 사안에 대한 제 의견을 첨가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분석했을 때 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사실이 다소 늘었고 또 아직 부족하지만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심히 흘러버렸을 시간들이지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아주 작게 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 ○ 리

비법학전공생으로 로스쿨을 준비한다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다. '법학 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도 과연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졌다. 이 불안감을 떨쳐내고자 법조인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법정모니터링을 지원하게 되었다. 법원에 가서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관찰 및 감시하는 활동이었다. 이 봉사활동을 이유로 처음 교대역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갔다. 법조인을 꿈꾼다면서 법원을 처음 와본 것이 약간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법원을 처음 들어가는 길은 두려웠다. 범죄를 내가 저지르거나, 목격했거나, 내가 당했을 때만 법원을 간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주권시민이라면 누구나 법원에 들어갈 수 있고, 재판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법원에 갔을 때는 법원 수위가 어떻게 왔냐는 질문만 해도 긴장하고 주눅 들곤 했는데, 30시간이라는 봉사시간을 채우며 몇 차례 다니다 보니 오히려 법원이 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법 전공 지식이 없는 내가 과연 재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 그 과정이 그저 변호사들 간의, 혹은 판사와 피고인 간의 대화라고 느껴졌다. 원고와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판사는 양

측의 말을 모두 들어주며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만 빼면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간의 대화와 다를 없었다. 물론 약간의 생소한 단어들이 있긴 했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의미가 빠르게 와닿았고, 자신의 취지와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는 재판의 특성상 그런 단어가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다.

재판을 보면서 때론 화가 나기도 했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며 눈물짓는 경우도 많이 봤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어떻게든 피해자의 탓을 하는 피고인들이 많기도 했다. 하지만 때론 피고인들에게도 그들만의 사연이 있었다. 예컨대 사기죄로 고소된 피고가 한 집안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자,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하고있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정당한 돈벌이라는 수단으로는 목적에 달성할 수 없어 불법적인 방법에 손을 댄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사회가 범죄자를 길러낸다는 아노미 이론이 떠오르며 내가 판사라면 이럴 땐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봤다.

재판을 볼수록 오히려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각각의 재판 상황 속 나를 변호인에, 검사에, 판사에 대입해보며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물론 모든 재판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다이내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재판의 당사자들 본인에겐 드라마나 다름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진지한 재판이었다. 가벼운 재판이란 없었다. 모두가 절실하고 간절해 보였다. 내가 추후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를 상상해봤다. '내가 과연 나의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힘이 될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봉사활동을 하며 확실히 나는 변화했다. 이전엔 나의 꿈이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다. 그도 그럴 것이 꿈을 말로만 표현해봤지 몸으로 체험해 보지 않아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전 나는 또렷한 꿈을 가진다. 모든 직업에 있어서 진정으로 꿈꾸고 싶다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현장을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내가 꿈꾸던 로망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현실감에 오히려 직업의 생생함을 느끼고, 직업의 무게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도 미래에 법조인으로 법정에 서는 그날까지, 공정하고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남지 않는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공부하고, 더 감수성을 가지고, 더 깨어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 ○ 루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법률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제 개인적 성장과 함께, 제가 배운 것을 나누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작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2024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으로 저는, 국회의원정감시 및 지방자치 모니터 활동, 국내외의 사법제도·헌법 등 번역 및 조사활동, 판결문 리서치,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은 번역봉사로, 저는 미국 연방상원 매뉴얼을 번역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은 미국의 의회 절차와 법률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매뉴얼의 방대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미국의 입법 과정과 비교법적 관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용어와 의회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관련 논문과 도서를 참고하는 등 철저한 자료 조사를 거쳐, 일반인도 알기 쉽게 매뉴얼을 번역했습니다. 미국 법제도의 체계와 절차를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법률적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은 2024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조사로,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필수봉사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이와 관련하여 총선결과와 해석과 법률개정에 관한 논의 등 다

양한 사회적, 법적 이슈에 대해 청년대학생들의 의식과 의견을 묻는 활동이었습니다. 설문결과가 이후 국정감사나 청년정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하여 최대한 다양한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노력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대학생들이 법률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률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번역봉사활동으로는 일본검찰사건사무규정을 번역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을 번역하면서 일본의 검찰제도와 법적 절차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 체계를 비교하며 법률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여 알기 쉽게 번역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가진 나라의 언어로 정확하게 다른 나라의 법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률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하였는데, 이번 학기 진행한 봉사활동 중 가장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대법원 2016도34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2심, 3심 판결을 정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판례 검색의 기초적 단계부터 판결 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참고문헌을 읽는 심화적 탐구의 단계까지 거치며 해당 사건의 법적 논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법률 적용의 실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법교양 수업 시간에 배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경찰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배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의 목적이 적법 절차의 준수를 통한 실제 진실 발견이라는 점을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실제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실제 사례를 통해 깊이 이해하면서 법적 절차의 중요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4 의정모니터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분류하며 정책의 이행여부를 분류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약분류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는지, 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모니터링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당선 이후 정치적 약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까지 함께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의 의미와 그것이 정치활동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리갈 마인드(legal mind)까지 함께 키울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큰 의미와 배움을 안겨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여름 학기에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률소비자연맹의 시민의 권익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 ○ 연

2024년 1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으로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사법감시배심원단,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점적인 활동으로는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활동입니다.

법정모니터링은 법원에서 사건을 선정하여 재판 방청 후 사건 내용과 재판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활동이었다. 4회에 걸쳐 총 20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서 방청하였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판사, 검사, 변호인, 법원경위가 공정한 재판과 재판 당사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해본 경험이 없었기에 첫 번째 법정모니터링 활동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법정 의식의 엄숙한 분위기에 적응하기에 바빴는데, 이후에 여러 번 법원을 방문하며 법정이 익숙해져갔고 빠르게 진행되는 재판 진행 내용도 노트에 받아 적으며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까지 정리하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재판 중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그 사유를 물어보고 국선변호인 신청 과정을 상세히 알려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판사가 피고인의 권리를 자세하게 고지해주고, 피고인이 법률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판사가 자세히 설명해주는 등 법적인 절차를 모두 준수하며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과목을 수강하며 이론과 판례로만 배웠던 개념들을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법조인들의 실무를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판결문리서치는 본인이 선정한 사건에 대한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과 원고, 피고의 주장을 표로 정리하고, 법률 용어 풀이와 관련 기사 검색 등을 하는 활동이었다. 처음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1심, 2심 판결문을 구하는 것부터 힘들었다. 직접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요청 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판사와 변호인의 경력을 찾는 것,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활동 역시 어려웠다. 판결문은 긴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법률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3번의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며 판결문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고, 최신 판례일수록 판사들이 판결문을 보다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의 시작은 사건 선정인데, 처음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흥미로운 사건을 선정하였다면, 이후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행정구제법과 연관된 국가배상사건을 선정하여 배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국가배상의 사례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 봉사활동을 신청하거나, 개인적으로라도 판결문리서치 활동이나 법원 방청을 계속할 계획이다. 1학기 동안 학교생활과 병행하며 봉사를 하였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법적 지식을 쌓고 실무에 대한 간접적 체험도 해볼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었기 때문이다.

○ 숭실대학교 법학과 박 ○ 후

의미있는 봉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는 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활동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흥미롭게 봉사를 잘 진행한 것 같다.

우선 가장 먼저 한 봉사는 '사법배심원단활동'이었는데 셸럼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처음 법정에서 가본 날이었다. 법정을 미디어로 접했을때와 비슷하게 그 자체로 근엄하기도 하고, 그치만 안정감을 주기도 하는 곳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나중에도 나도 법조인의 꿈을 꼭 이루어서 방청객이 아닌 직접 변론을 하는 석에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는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내 또래인 친구들과랑 법이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없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다양한 학교와 나이를 가진 여러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취합해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흥미로웠다. 하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의견은 다른대로 존중해야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했다. 의정 모니터링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분석하는 활동이었다. 이전까지는 국회의원 공약을 이렇게 세세하게 뜯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직접 살펴보니 한 사람이 내거는 공약의 수가 정말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투표를 할때는 지금보다 더 공약을 잘

보고 가장 실현 가능하고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정 모니터링이 생각보다 흥미로웠던 봉사활동이었다.

마지막으로는 '판결리서치' 활동이다. 판결문을 고르는 과정에서 어떤 판례를 할지 고민했는데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고 있었던 주거침입과 건조물 침입에 관련된 판례를 선택했다. 사실 판례를 볼 때 중요부분만 보고 핵심적인 것만 파악했던 적은 있어도, 판례 전문을 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활동이었다. 또한 변호사와 검사의 패소, 승소율을 찾아보거나, 학력을 알아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 판례까지 차근차근 전문을 읽고 파악하다보니 판결의 흐름이 보였고, 두 번째 판결리서치활동을 할 때에는 그나마 수월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판례를 보기 쉽게 쟁점을 정리하고 용어를 정리해놓은 것을 보고 판례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뿌듯하기도 했다.

30시간이 되게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나씩 하다보니 금방 채워진 것 같다. 가장 재미있었고 인상 깊게 남은 봉사는 사법배심원단활동이다. 이번 학기에 열린 사법배심원단 활동에 2번 다 참여했는데 그때 느꼈던 법정이 주는 느낌과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알 수 없는 원동력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싶다. 나는 법학에서 형법을 배울때가 가장 흥미로운데,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형사사건을 판결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이번 봉사활동으로 법과 판결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가는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해본 경험도 있었고, 새로 알게된 정보도 있어서 알찬 시간이었다.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박 ○ 정

2023년도 겨울학기에 이어 2024년 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활동들을 거듭할수록, 중학생 때부터 법조계에 종사하기를 꿈꿔왔던 나로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활동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2024년 봄학기 필수봉사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 중, 의정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제22대 당선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였다. 지난 겨울학기 때는 임기가 끝난 제21대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내가 직접 평가를 하며 헛갈렸거나 불편했던 점을 최대한 신경 쓰면서 공약을 분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공약을 분류하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부터 지역의 발전까지 정말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무언가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봄학기 필수 봉사활동으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다소 질문이 자극적인 경향이 있어 설문지를 돌리기에 조심스러웠기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조사자로서 설문을 부탁할 수 있는 친구 및 선배들의 의견을 물으며 나이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소 신기했다.

또한 지난 겨울학기에 이어 번역봉사를 꾸준히 이어서 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미국의 상원규칙, 하원규칙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한국과 다른 영미법 체계이며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어색한 법률용어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관련 배경, 뉴스 및 법률용어한영사전을 참고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언어공부에 거부감이 없고 새로운 단어를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여 재밌게 하였던 것 같다.

기회가 되어 다음에도 법률소비자연맹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요즘들어 세상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 수에 비례하여 일반인의 사고과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흉악범죄와 더불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판례들

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사건들은 어떤 과정과 원리를 통하여 어떤 죄형을 받게 되는지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싶다.

○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 ○ 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문예창작학과생으로서 법조인을 꿈꾸게 된 후 처음 하게 된 법관련 활동이었다.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법조계의 시스템을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법정모니터링을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과 전주에 소재한 지방법원 각 두 지역에서 진행하였는데 확실히 지역을 달리하니 사건을 다양하게 방청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형사 살인 사건이었다.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알기 전까지 나는 피고인의 아내이자 도주에 대한 공범 혐의가 있는 증인을 피해자의 유가족 정도로 파악했다. 재판이 있기 전 휴정 중 대기하는 의자에서의 증인이 변호인에게 말하는 연사나 행동만으로는 억울함과 비통함 외에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증인이 피해자측 증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검사의 질문 판사의 질문이 거듭될수록 (증인에 대한 심문이 45분에 달했다) 문득으로 치자면 아이러니를 느꼈다. 증인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도주를 도왔고 사건의 내막을 피의자와의 전화를 통해 모두 알고있었음에도, 심지어 경찰의 수사 기록에 이와 같이 진술했음이 증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를 전부 부인하고 수사관의 독단적인 진술서 작성이었다는 투로 답했다. 더불어 증인 본인이 애절하게 여기는 피고인의 억울함 나아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살해당한 피해자임을 공고히 했다. 나는 이를 통해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여실히 절감했다.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과정인지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개선점을 언급하자면, 판사 개인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모두 동일한 덕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이 가장 바람직할 테지만 만 이의 편차가 크다면 불이익을 당할 개인들이 너무 많다. 일례로 한 판사는 변호인과 피고가 준비해온 증인에 대한 질문을 절반이상 생략할 것을 강요하고 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제지했다. 해당 재판부의 양측에 앉은 판사들도 단순히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도 많았다. 재밌게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주며 재판을 이어나간 판사도 있었다. 이런 분들이 아니었다면 편차를 평가할 기준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판사도 공무원에 해당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직급의 공무원과는 그 특수성이 남다르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기대치도 다르다. 해당 판사에게 그 사건이 처리해야할 업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겠지만 개인에게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한 점을 유념하여 재판에 임해준다면 사법부의 판결과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 사료된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 ○ 준

봄 학기 봉사활동 기간동안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의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법·입법부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였습니다. 법률봉사는 직접·구체적인 특징인을 상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였습니다. 직접적인 상대방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고, 더 큰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포함하여 법원에 총 4회 방문하여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재판부에 들어가서 실제 사법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판 당사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었고, 각 재판부별 판사님의 특징과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기록할 수 있어서 더 나은 사법활동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재판이지만, 일반인들은 재판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일반인이 재판을 방청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 활동을 통해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다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에 법원에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재판을 보면서 재판의 형식과 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의 내용을 들으며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리, 재판상의 절차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응원칙, 법적 청문원칙 등 형법상의 대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을 통해 배운 법원리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서 이론과 같은 점,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법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총 4인의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추후 공약이행률 분석에 기초가 되는 활동인 만큼, 정확성을 기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 지역별, 정당별 특색이 드러난 공약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였을 때 지방 의원은 선거구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공약이 수도권에 비해 절반 이하로 현저히 적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정당별 당론이 드러난 공약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약한 사항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확인하여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드러낸 판결을 통하여 특정 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경우 유효한지 검토해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정 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이사회 결정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사회는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부여한 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인데, 특정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사전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주주들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이사회 결정에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급법원부터 대법원의 판결까지 분석하면서 원심과 대법원의 법리가 다른 경우, 양 측이 주장하는 입장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으며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가 타당한 경우도 있지만, 미흡한 점도 있으며, 법원이 제시하는 논리가 부족한 점도 많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가장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가 추상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점들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수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변 대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볼 수 있었고, 설문 결과를 정리하면서 성별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었고 설문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대답한 문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학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의 행위 전반을 이해하고 각 주체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점, 보완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활동과 같이 제대로 각 기관의 활동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내부적 문제는 쉽게 파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보다 세밀한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기관의 작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의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박 ○ 현

저는 법률소비자연맹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과 언론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10대 일간지 사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간에 뜨는 뉴스만 봐왔기에, 일간지별로 뉴스를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시기인 5월 둘째주의 주요이슈에는 우원식 선출과 네이버인사태가 있었습니다. 일간지별로 이를 해석하는 것과 총평하는 것이 상이함과 동시에 사설 특성상 각자의 해석이 많이 작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재판의 공정함을 위한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를 들었을 당시, 언론이 재판, 혹은 시민들에게 그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려나,는 생각을 했었으나 이번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언론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향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비단 일반 시민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닌 배심원단과 법조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게되었고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에는 두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나 두번째 작업인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특허분쟁은 제가 봐오던 판례와는 다른 성격의 판례였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허분쟁이다보니, 각 제품의 과학적 특성을 다루며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다루는 것이 주였기에 판례에 과학적 내용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판결에 있어 전문가의 소견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소견이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본 봄학기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비록 개개인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지라도 이 활동들이 쌓이면서 생길 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는 더욱이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 ○ 영

평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학교를 재학하면서 할 수 있는 법과 관련된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에 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지원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봉사활동은 크게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 모니터 활동과 국정감사, 즉 국회 의정 모니터 활동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것은 법정 모니터 활동이었는데, 실제로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 진행 과정을 함께하고, 재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범죄와 그에 따른 법적 제재와 형벌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행해지는 재판 과정과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 피고인의 죄를 증명하려 하는 검사,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적합한 형량을 내리는 판사를 보며 그러한 활동에 존경심이 들었다. 사법정의란 좋은 정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라고 하는데,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학교 전공에서 배웠던 적법절차원칙과 실제적인 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 사실 나는 법에는 관심이 많을 뿐,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활동에는 다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하며 최근 행해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많은 조사를 했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선거 공약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많은 국회의원을 조사해보니 겹치는 내용이 꽤 있었고,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역별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들을 보며, 공약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을 했는지 그 이행도와 성취도를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나의 꿈인 법조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잘못된 법과 제도 및 불공정한 공권력행사를 감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루는 데에 이러한 시민단체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 ○ 희

공약과 관련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지역구가 아님에도 다양한 공약을 다룬 내용들을 볼 수 있었다. 공약은 많았지만 사실상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한 정책은 다소 실현 가

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했다. 나 또한 지역구 선거에 임할 때 공약을 모두 읽어보지 않기에 이러한 기회를 삼아 내 지역구의 공약도 읽어보고 다른 지역구의 공약과 일부 대조도 해보면서 이러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전부 살펴볼 기회는 많지 않다.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공약, 특히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이상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공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조명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사회적 이슈나 계층 및 집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지역구와 관련된 공약이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복구 사업이나 관광 사업 등을 확인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관련하여 어떤 공약이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관련 공약을 읽어보았는데 내가 더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알고 있던 개념은 친숙하게 복습하고, 모던 개념은 새로 배우는 시간이 되어 보람을 느끼고 각급 법원이 내린 판결의 타당성 및 정당성에 대해 다른 판례나 기사를 참고하면서 숙고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판례문을 접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이라는 판결과 관련하여 계속적 계약의 성립 여부 또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 ○ 은

법무 쪽에 관심이 있어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이 없어 경찰서 민원 안내 봉사 등을 하고 있던 와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바로 신청해 봉학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학기 중이고 집이 법원과도 꽤 먼 거리에 있어 부끄럽지만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활동만으로도 얻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더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봉학기 봉사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여름학기를 신청할 정도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던 누구라도 욕심나는 알찬 봉사입니다.

사법감시단 활동, 언론모니터링 사실 분석과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대학생의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류를 진행했습니다. 사법감시단 활동으로 처음 법원에 가보았는데, 그동안 뉴스나 드라마에서 법원에 가면 무섭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던게 무척하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법감시단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없고 떨리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내 재판의 올바른 감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든든할 것입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제가 참석한 재판은 짧게 끝났지만, 사법감시단으로서 활동한 첫 기억은 오래 남았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봉사의 중요성과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사실분석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이지만 주로 기사를 읽어왔고 사실은 읽지 않았던 터라 다양한 글을 읽어보자는 마음에 신청하였습니다. 확실히 이번 봉사를 통해 짧고 굵은 사실의 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주제를 정해두지 않고 일주일 동안 10대 일간지에 올라온 모든 사실을 읽다보니, 다양한 측면에서 얻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더없이 체감되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사실 분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단순히 사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기간 중 올라온 모든 사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빠르게 읽고 넘기지 않고 두 번, 세 번 생략하며 문장을 읽어내리니 기억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무엇보다 권력을 경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잘못된 정치는 꾸짖고, 힘든 민생고는 알리는 사실들을 읽으며 앞으로도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관심 없는 분야의 사실이라도 꾸준히 읽으며 한가지 이슈에 언론이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생의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 하며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봄은 총선이 있어서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에 어렵다며 투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법, 정치의식이 천차만별이라 최대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또 질문지를 보며 나는 어느 정도에 정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법과 정치는 겉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어쩐지 법률가나 정치인처럼 특정 대상만이 하는 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투표 가능 연령이 된 후 대통령 선거와 이번 총선거까지 겪고 나니 더욱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로 대학생의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분류는 무작위로 지정해 주신 정치인의 공약을 알아보다 보니 낯선 지역이었지만 그만큼 흥미로웠습니다. 앞서 말한 대학생의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에서 후보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뭐냐는 질문에 선거 공약이 생각보다 낮게 측정되었는데, 저 또한 선거 공약을 대충 보고 넘겼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당선자들은 각 지역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공약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약분류를 하다 보니 당선자들이 부디 약속을 잘 지키길 바라는 마음이 절로 생겼습니다.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우리 지역 후보자의 다른 특징 대신 선거 공약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학기 봉사의 막을 내리며 소감문을 작성했습니다. 되돌아보니 뿌듯했던 순간만큼 더 활동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 봉사를 알게 된 것에 위안을 두며 다음 학기 활동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람찬 봉사뿐만 아니라 좋은 성장의 기회까지 만들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께 감사드립니다.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 ○ 정

이번 봉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학문적이고 개인적으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법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법의 이론과 실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미국 하원 의사규칙 번역, 판결문 리서치, 사법감시배심원단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법률 실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정치 공약의 내용을 정리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는 것은 통찰력을 크게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약은 단순히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하원 의사규칙 번역 작업은 저에게 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용어와 절차가 접하며, 미국의 정치적 문화가 어떻게 법률에 반영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을 다국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법률적 사안을 실제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의 적용과 그 결과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으며, 법률 전문가로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

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서의 활동은 법정 과정을 직접 목격하며, 법률이 개인의 생활과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다양한 사건들을 방청하며, 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저는 법률이 단순히 규범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법률 교육을 받으며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향후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이번 봉사활동은 때때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이 경험이 제 학문적 성장과 진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이번 학기 활동은 정말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 법률 전문가로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방 ○ 연

법률소비자연맹의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슈를 학습하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 필수활동인 공약분류 봉사, 법정치의식조사, 중국어 번역봉사, 이슈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모두 의미 있고 재밌는 활동이었다.

먼저 공약분류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및 공약 등에 대하여 깊게 알아볼 수 있었다. 정치에 관련해서 평소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또한, 법정치의식조사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사를 실시한 주변인들 역시 자신의 정치 성향 및 사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중국어 번역봉사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조문을 해석하고 알맞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슈 모니터링의 경우 지난해부터 발생한 '의대 증원' 관련 이슈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슈를 정리 및 분류하면서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특히, 각 언론사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인상 깊게 남았는데, 보도하는 입장에 따라 이슈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봄학기 봉사활동은 다른 봉사활동들과 달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서강대학교 철학과 방 ○ 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024학년 봄학기에 봉사단원으로 신청되어, 해당 기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법 관련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뜻깊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진행하였던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 목록은 번역 봉사, 법과 정치의식 설문조사, 의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각각의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느꼈던 자세한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역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상원 매뉴얼을 받아 210쪽에서 230쪽까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를 졸업한 바가 있어 '번역' 활동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존재하므로, 해당 봉사활동은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 분야는 평소 흥미를 갖고 있었기에 이를 진로와 연관되어 있기까지 한 법률 번역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봉사는 많이 해보았으나,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은 이번 활동이 저에게 있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전과 비교하여 '법'이라는 영역에 더욱 친숙해질 수 있었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법률 번역 봉사활동이 진로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의미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적 지식과 언어적 지식을 나눌 수 있음에 느끼는 뿌듯한 감정과 더불어 법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할 때에 흥미를 갖는 나 자신을 재차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얻은 특별한 경험들이 모여 빛을 발하고, 또 이러한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나눔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직업인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둘째,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 대학생의 법적 의식과 더불어 유권자 의식을 조사하게 되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지에 쓰여있는 질문 중 2번 질문은, '254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한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 힘이 90석으로 71석 차이가 납니다.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 기인한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중,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는 투표자의 인식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준 설문지가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견해로 이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단지 '당'을 보고 뽑는 것은 투표권을 가지고 실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투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표 방식은 결국에는 힘 있는 당에는 속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는 의원 후보자에게는 매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과연 투표자 인식 개선을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든 좋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설문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작은 행동이 모여 장기적으로는 정의의 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현재 재학 중인 서강대학교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철학도로서 어린 나이부터 추구해오던 공동체적 '정의'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부하던 중,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누군가에게는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행해지는 현 사회 실태에 대하여 느꼈었던 문제의식이 해당 설문을 진행하며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경험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였으며, 이는 곧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을 실제로 분석해보는 활동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기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당선자의 공약이 이행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활동을 하면서, 예비 법조인으로서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봉사를 꾸준히 하며 미래 꿈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나가고자 하는 나날들을 보내리라 결심했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성 ○ 연

이번 2024년도 봄학기에 저는 입법절차집행법을 번역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회의원 공약 분석이라는 학교 과제를 통해 입법 과정과 관련된 문서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입법의 중요성과 그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입법절차집행법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국가의 법률 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므로 번역 작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번역 봉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법률 용어와 전문적인 표현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률 문서는 일반적인 문서와 달리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저에게 큰 도전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법률 문장을 분석하고,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번역한 내용을 팀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팀원들 각자의 번역 방식과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업의 중요성과 번역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를 마친 후, 저는 단순히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 입법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 문서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그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봉사를 통해 법률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법률 번역가는 단순한 언어 전문가를 넘어, 법률적 지식과 언어적 능력을 모두 갖춘 전문가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 관련 번역 활동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특히, 다양한 법률 문서를 접하고 번역해보는 경험을 통해 법률 지식을 더욱 쌓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번역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번역 활동 외에도 법률 관련 학문을 더 깊이 공부하여, 법률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법률 지원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번역 봉사는 저에게 단순한 번역 이상의 의미를 주었으며, 앞으로의 진로와 꿈에 큰 영향을 미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손 ○ 연

평소에 법에 관심이 많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해 법과 관련한 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어보고자 시작하였습니다. 번역봉사, 판결문리서치, 법정치설문조사 및 공약분류 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정치와 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번역봉사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제퍼슨 매뉴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평소 익숙하지 않은 의회법이라는 주제와 영어의 단어를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 원문의 내용을 살리고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의 특징을 공부하면서 법령을 정확하게 번역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의회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법령에 대해서 관점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히 전공과 관련한 활동을 평소에 많이 하면서 환경에 관심이 많아 법률소비자연맹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환경법과 관련한 판례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 규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대두되는 현재 시기에서 그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지 않은 편이나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2016다33202와 2019다292026 판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두 판례는 모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확인에 관련한 것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변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액수에 대해 판결내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환경소송을 다룰 때 그 책임 여부를 증거자료를 종합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다292026 소송의 경우 경마공원의 소금 살포로 인해 주변 인근 화훼농장의 식물이 고사하여 책임을 제기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 과학적인 방법을 증거 자료로서 채택하여 그 책임 발생의 인과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환경소송에서 그 책임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환경영향평거나 관련한 과학조사 방법 등이 사용됨을 깨닫고 전공에서 배운 것과 연관지어 오염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1다33202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고층건물의 빗받사가 주변 거주단지에 피해를 끼쳐 그 손해를 판단하였는데, 이때 1심과 2심에서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에서의 판단 근거까지 살펴보면서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단 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과정을 모두 살펴보면서 어떤 주장이 채택되었고 어떤 주장이 채택되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법리를 판단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판결문이 어떻게 쓰여지는 않았는지,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판단이 합당한

지를 검토해보며 사법감시의 방법과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법정치설문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변 청년들의 정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청년 대상의 공약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정치 인식을 통해서 각자 이익이 상대적으로 다른 다원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서 법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등 목표를 다지며 법과 정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심 ○ 진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게 어떤 봉사활동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내가 하는 봉사활동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었다.

처음 진행한 봉사활동은 사법감시 배심원단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이슈가 되었던 쟁점을 다루는 재판에 참관하여 그 공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변호인이 사정이 생겨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재판이 금방 끝났었다. 처음 봉사활동이라 기대감이 컸었기에, 제대로 된 재판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무척 아쉬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점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재판은 당사자가 학생이었을 때부터 꽤나 오랜 기간 이어져온 재판이었기에, 최대한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변호사가 있어도 힘든데, 변호사가 없다면 재판이 얼마나 힘들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 국선 변호인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후 진행한 봉사활동은 법 번역 봉사활동이었다. 미국 연방하원규칙을 꽤나 많이 번역했는데, 한국어로도 어려운 법을 영어로 읽으려니 굉장히 힘들었다. 위 관련 용어를 일일이 찾아봐야 했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법체계를 살펴보아야 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운 점도 많았다. 특히 생각보다 법이 굉장히 체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법이 큰 범위에서의 규칙만 제정해 놓아 재판에는 재판관의 자의성이 꽤나 개입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세부사항도 꼼꼼히 기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치의식조사도 진행했는데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보였기에, 이름을 적지 않고 보내주면 다른 사람 것과 섞은 후 확인하겠다고 설득함으로써 응답을 얻어낼 수 있었다. 내 주변 사람들이니까 정치성향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응답이 나와서 흥미로웠다.

필수활동 중 하나였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류도 즐겁고 뜻깊은 활동이었다. 사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 공약은 굳이 들여다 볼 기회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몇 곳이라도 확인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확실히 국회의원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공약에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당보다는 개인의 성향이 공약 선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

결론적으로 여러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시민으로써 법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법, 사법, 정치, 언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선거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국민의 관심이 사법체계에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활동이 재택봉사로 진행되어 학기 중 시간이 많이 없었음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 같다. 여름 봉사도 신청했는데, 그때는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안 ○ 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는 내 삶의 유익한 한 페이지가 되었다. 2024년 1학기 동안 봉사

단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법률 관련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 러시아 연방 일부 입법 개정 법령설명 번역, 러시아 연방 가족법 총칙 번역, 러시아 연방 언론매체법 총칙 번역, 그리고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법률 분야의 다양성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법원의 실제 진행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법학 이론과 실제 법률 적용의 차이를 체감하는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법정에서의 절차, 변호사와 판사의 역할,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 등을 통해 실제 법적 다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법정에서의 예의와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첫 번역 봉사였던 러시아 연방의 일부 입법 개정 법령 번역 작업은 러시아 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러시아어를 넘어 러시아 법 원문을 번역하면서 해당 법령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그 법적 효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국제 법률 비교 연구의 중요성과 번역의 세심함이 법률 적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기도 했다.

러시아 연방 가족법 총칙과 언론매체법 총칙 번역 작업 역시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가족법 번역을 통해 러시아의 가족 제도와 그들의 법적 보호 체계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언론매체법 번역을 통해 러시아의 언론 규제 및 언론에 관한 법적 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번역 활동은 글로벌 법률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무엇보다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주로 친구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그들이 느끼는 한국 정치 내부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신선하게 다가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면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법률 교육과 정치 참여를 향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봉사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단 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 훗날 내가 법률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비법학도로서 이렇게나 법률 활동에 몰입해본 적이 많이 없었기에 법률가 자질을 키우는 데 매우 유익했으며, 앞으로도 법률 분야에서 더 많이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기도 했다.

이렇듯 법률 소비자 연맹 대학생 봉사단 활동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안겨주었다. 한 가지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단 활동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재택 봉사는 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공부할 수 있었기에 뜻깊었고, 현장에서 법률 접하는 봉사에서는 법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유관한 사람들 사이에서 법이 가지는 권위를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분야에서 더욱 성장하고, 더 나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길을 걷고 싶다.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안 ○ 섭

이번 여름학기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총 3회와 법정치 의식 조사, 그리고 의정모니터링 3명을 하였다. 각 봉사활동을 하며 법조인이 실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나는 어떠한 법조인이 될 것인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나는 이번 학기에 주로 학교현장과 관련한 판결을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던 바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실태 및 법판단이 상당히 다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기 전 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과도하게 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만 생각하였다. 사범대학교 출신인 나는 선배들 혹은 초등교사인 지

인에게 최근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처럼 높아진 학생 인권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정에서 최대한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조례 또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읽은 결과 무조건적으로 교사의 권리만을 높이는 것은 그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교사의 권리 중 하나인 처벌권을 크게 제한하였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없기에 법정에서 그 점을 고려해야 하며 조례 자체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아동학대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학부모가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판결문에 서술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교육은 학생의 정신·육체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미성년자인 학생과 교사만이 존재하는 공간이며, 또 한 삶 전체에 있어서 교사가 주는 영향은 지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축소된 처벌 대신 어떤 식으로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교사의 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언론이 심할 정도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판결문 리서치는 판결문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다루는 기사들에 대한 정리 또한 포함된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사들이 특정 부분은 확대해서 다루고 특정 부분은 과도하게 축소해서 다루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특정 주제가 이슈화가 되면 대중들이 그 주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2심 판결될 때는 관련 주제에 대해 대중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3심이 판결될 때는 그 주제에 대해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2심 판결에 대해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3심 판결에서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 완전히 달랐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3심 판결일 경우 사건 당사자의 행동은 해악이 인정되었지만, 증거 인정 여부로 인해 승소가 결정되었는데, 기사에서는 증거에 기록된 사건 당사자의 행동 또한 긍정적으로 서술되고 있었다. 이는 기사를 읽는 사람이 사건 자체를 잘못 판단함은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비판 또한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요새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이슈화가 된다.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듯 기사로 써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사건들도 당사자들이 서로 각기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기사들을 읽으면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같은 내용을 재진술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 언론사의 관점대로만 사건을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기사 또한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이기에 100% 객관적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 중립적으로 다루는 입장의 반대 당사자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번 학기에 총 34시간의 봉사를 하였다. 34시간의 봉사 동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 법정, 입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었다. 나와 같이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법실태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이라면 꼭 해봤으면 좋겠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양 ○ 혁

군인 신분으로 지난 가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복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학부생에 불과한 내가 할 수 있는 법률 봉사활동이 많지 않았고, 그 중 법률소비자연맹이 가장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성이 알차기에 다시 찾게 되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나로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었다.

2024 봄학기에 내가 한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이다. 가장 먼저 법정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법정모니터링은 민사, 형사, 행정의 재판부에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해당 재판에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재판장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재판당사자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관찰하면 재판의 진행과정을 기록하는 활동이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은 아니기에 9개의 재판부(민사, 형사, 행정 각 3개)를 모두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민사 재판부 3개, 형사 재판부 3개 총 6개의 재판부를 모니터링했다. 민사재판의 대부분은 구상금, 손해배

상등 돈과 관련된 문제였고, 수천만원에서 수십억까지 그 금액은 다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을 마주한다는 사실에 방청하기 전에 많이 긴장했던 게 기억난다. 실제로 형사재판을 처음 방청하면서 죄수복을 입을 피고인들을 처음 마주하기도 했다. 이번에 법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점은 재판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가을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선 한 재판으로 1~2시간 가량 이어졌기에, 이번 봉사활동으로 속행 재판을 처음 알게 되었다. 시간당 10개 정도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내가 본 가장 짧은 재판은 4분에 불과했다. 당사자들에게 개개인은 매우 절박한 상황인데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냐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나라엔 정말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특허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업체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해당 재판에서 대기업측 변호인은 7명이었으나, 원고측은 2명에 불과하여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실제로 재판은 증거주의를 기반으로 합리적을 진행되었다. 증인이 중요할 때가 많았고, 판사는 증인의 부적절한 말을 바로 저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했다. 판결문리서치는 대법원 판결문을 대상으로 해당 재판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재판관들을 파악하고, 해당 사건의 판결요지와 쟁점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활동이다. 판결문리서치는 내가 배운 법학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판결을 선택하고 리서치를 진행했다. 판결문리서치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부분은 용어설명에 대한 부분이었다. 법학을 배우고 있는 나로써는 어쩌면 당연하게 사용하고 이해했던 용어들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었다. 법학을 배우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고, 판결문의 내용 또한 법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어려워보였다. 이 내용들을 법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자세히 풀어적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 법학이 권위자의 소유물이 아닌,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활동이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봉사활동으로 법정치의식조사와 국회의원 공약분류활동이었다. 법정치의식조사는 상당히 아쉬웠다. 해당 설문지는 개개인의 정치성향을 물어보는 문항도 있어 응답자들이 답을 하기에 꺼려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공약분류 활동에서 총 5명의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했다. 그 중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도 더 뿌듯했다. 5명의 국회의원 공약을 분류해보니 국회의원별로 공약의 접근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누구는 국가적 시설 준공 등 큰 타이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세세한 공약이 부족하기도 했고, 누구는 읍, 면, 동별로 세세하게 분류하여 상세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약의 수는 20개부터 200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누구의 공약이 더 좋다고 할 순 없었다.

이번 2024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고, 내가 배운 내용이, 봉사활동이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점을 느껴 상당히 뿌듯했다. 앞으로도 법률 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 여 ○ 경

3개월 가량의 시간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2024 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언론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 중 저는 법정치의식설문조사, 의정모니터링, 그리고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법정치의식설문조사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설문 답변을 부탁하고 설문지를 수합하였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보다 설문지에 답변해야 할 문항의 수가 많았고,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 한글 파일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문조사 참여율이 저조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문지에 답변을 해준 사람들도 정치 문항에서는 답변에 어려움을 빚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인 저도 김건희 여사의 의혹, 이재명 대표의 의혹 등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기가 어려웠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설문조사에 간단히 써있었다더라면 판단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 폼, 네이버 폼과 같이 20대들이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면 접근성도 올라가고 집계를 하기도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수합하여 집계하면서 제 또래의 주변 사람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두 명의 국회의원을 배정받았는데, 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선거공보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일이 거의 없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마다 선거공보의 형식이 다르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국회의원 중 하나는 똑같은 공약을 선거공보에 여러 번 써두었는데, 공약이 100개가 넘어서 골라내기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공약 외에는 공약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같은 공약을 여러 번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공약 점검 및 공약 이행을 조사를 진행하여서인지 이번 국회의원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공약을 이행하게 될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며 다양한 판례를 접했습니다. 어떤 판례는 문단이 너무 길어 집중이 어려웠고, 어떤 판례는 사실관계가 너무 많아 무슨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판례를 읽을 때 물론 용어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문장과 문단이 너무 긴 것도 일반인들에게 어려움을 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요지나 항소이유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긴 글을 읽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바꾸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 논리력과 독해력의 함양, 그리고 판결문과 법리에 대해 익숙해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법조인,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명의 청년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오 ○ 현

경영학을 전공하고 관련된 학문들을 공부하면서 특히 세법과 상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법학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고 3학년 때부터 융합전공을 통해 본격적으로 법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법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 좋았지만 공부할 때마다 항상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었고 이는 실제로 재판을 방청해보면서 사회 분쟁 해결의 큰 축으로서의 역할을 실감하는 것으로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연히 재판을 방청하게 되면서 주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면서 계속 방청할 수 있는 법률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번 봄 활동을 경험해보면서 지적 호기심의 해결과 뿌듯함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었을 관심이 많았던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실세계에서 법이 적용되는 모습과 법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얽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혹은 다투고 우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법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삶의 양태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법정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역으로 이런 항목들을 주권시민으로서 주의깊게 봐야함을 배웠습니다. 판사가 정시에 들어오고, 법률대리인은 피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면

서 이런 항목들이 재판에서 중요하고 꼭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사건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던 원고가 구 미쓰비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당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언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고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준 판결만큼만큼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정의를 위해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긴 판결문 전문을 여러 번 회독하고 쟁점을 정리하면서 결국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리적이고도 정합적으로 판결을 이끄는 과정을 보면서 법과 논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판결문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을 조사해보는 과정에서 아픈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지금이나 대한민국 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승소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매년 투표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제대로 살핀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국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결국 대의제는 국민의 의사를 보다 잘 대변해야 하고 그렇기에 투표를 하기 전에 공약 하나, 표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함을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발전은 공약을 잘 살피는 것처럼 주권시민으로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 정치 의식 설문조사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가꾸운 사람들이 법과 정치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주변 사람들의 대답과 근거가 모두 달랐고 그 이유에 대해 같이 대화해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에서 그들 개개인이 법과 정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제가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해 나감에 있어 큰 정보를 주었고 이를 통해 진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가 봉사를 해서 기여하는 것이 그 본질인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개인, 시민, 법조인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이 꼭 필요한 것임을 느꼈고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당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오 ○ 우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학기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했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가장 유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장래희망을 법조인이라고 말하지만 법정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내가 봉사를 이유삼아 다녀왔고, 법정에서 느낀 바가 정말 많았다.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법원에 가서 형사, 민사 재판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참관하게 될 것 같다. 특히 이번에는 미리 방청 신청을 하고 성공하여, 이재명 재판에 방청할 수 있었다. 이재명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미리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 중 확정된 사람만 방청이

가능하다. 나는 처음 신청했는데 운 좋게 바로 확정되어 이재명 재판을 보게 되었다. 입구에서 방청권을 나누어 주고 지각을 하면 방청권조차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이재명 재판의 배경을 잘 알고가지 못해 재판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 이재명 재판 이후에 다른 대기업의 고등재판도 들어가 보고, 성폭행 재판도 들어가 보았다. 이 중 가장 흥미로웠던 재판은 성폭행 재판이었다. 재판에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어려운 법률 용어 사용이 적었고, 엄숙한 분위기는 있었으나 매우 딱딱하

다고 느끼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자주 방청을 다니면서 조금 더 전문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봉사활동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봉사는 바로 번역봉사이다. 32시간의 봉사시간 중 20시간 이상을 투자했던 것 같다. 사실 인정되는 봉사활동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로스쿨을 국내로 갈지 해외(미국)로 갈지 고민 중이던 나에게 어쩌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특히 내가 가려고 하는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기에 내가 미국 로스쿨을 가게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번역봉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미국법이 재미있다고 느꼈다. 사실 내가 번역한 내용은 정말 방산의 일각도 안 되는 자그마한 분량이지만 흥미를 생기게 하였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짬짬이 미국이나 해외 법조문을 번역해보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을 해보니,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봉사활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봉사활동이라고는 하지만 나를 성장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뜻깊다.

○ 한양대학교 철학과 유 ○ 연

저는 향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했고, 겨울학기에 신청했던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법조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재판 과정의 일부만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전체 흐름을 추론하기 어려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재판 과정을 공부하고 경험하기 위해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추가로 봄 학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열람해본 경험은 있으나, 비법학 전공자 특성상 1심부터 상고심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판례를 열람하고 분석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관의 판단이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건을 분석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관련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련 재판 기록을 조회하는 활동이면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의 소송 대리인들, 법관들의 과거 경력 및 미확정판결들의 자료를 찾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수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법관의 경력을 조사할 때 비교적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대법관들을 제외하면 동명이인들도 많았고, 인물마다 소정의 정보료를 내야만 열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법관이 판결한 것 같은 다른 사건의 기사를 찾아서 과거 어디 재판부에서 종사했는지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리서치를 맡기로 신청한 사건만 분석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겨울학기에 진행했던 법정모니터링 활동과 다르게 사건에 해당되는 판결문들과 관련 기록들만 잘 찾아두면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시간과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정모니터링이나 법정모니터링과 달리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하나의 리서치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가 한 두 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 상고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초기 쟁점이 원고별로 상의하게 되고, 판결문도 쟁점 별로 부분 파기, 부분 주장 인정 등으로 판결문이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각 쟁점을 찾아 당사자들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는 데에만 서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학 전공자라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판결문 및 당사자 조사 / 판결문을 통한 사건 이해 / 쟁점 및 주장 정리] 이렇게 3단계로 활동을 진행하고 총 2건의 판결문 리서치활동에서 40페이지와 20페이지의 파일을 제출했습니

다. 이 같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같은 인정 사실을 근거로 하더라도 재판부별로 판결이 크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보통 1심 판결문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재판 인정 사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2심부터는 원심의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에 사실 판단보다 쟁점과 주장의 중대함 및 필요성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례에 방점을 찍고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원심 인정 사실보다 이 사건을 인간으로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논리적 근거나 사실에 의한 판결보다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판결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한 두건의 사건이 모두 상고심에서 1심을 포함한 원심의 판결을 뒤엎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논리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냉철하지만 동시에 감성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름학기 나 가을학기에도 여러 판결을 신청해서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유 ○ 민

2023년도 겨울학기 봉사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아 2024년도 봄학기 봉사 활동을 신청하였다. 이번 학기 첫 활동은 국회 현장학습이었다. 평소 국회 주변은 많이 지나다녀 봤지만, 국회 안에 들어갈 일은 없었는데, 국회 현장학습을 할 기회가 생겨 지원하였다. 실제로 가본 국회는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고, 엄숙한 느낌이었다. 국회 현장학습을 통해 2023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국민복상 시상식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 평소 쉽게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

지난 학기 봉사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었던 법정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관계로 봄학기 봉사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사실 재판 방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몇 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재판 중간에 들어가서 끝까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었다. 또 우리 지역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꼭 한 번쯤은 지역 법원에 방문하여 방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가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방청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이번 법정 모니터링에서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둘 다 방청했는데 형사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과 교도관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또한 민사재판은 이번에 처음 방청했는데, 하루에 진행되는 재판이 많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의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 꼭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다.

의정 모니터링에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분석하였다. 이 활동은 지난 학기에도 했었지만, 그때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다면 이번엔 내가 직접 당선자의 공약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당 지역구 당선자를 찾아보고, 선거공보를 내려받아 읽어보니 흥미로웠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이렇게 많은 줄 알지 못했는데 직접 분류를 해보니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까지 공약이 정말 많았다. 이렇게 많은 공약을 꼼꼼히 분석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약에 대한 이행률을 알기 위해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를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여태까진 투표를 할 때 정당이나 후보를 위주로 보고 투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찾아보고 꼼꼼히 읽어본 다음 투표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법률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기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이번에 해보지 못했던 봉사 활동들도 적극 참여하고 싶다. 내 진로인 법률과 관련된 활동을 봉사와 접목해서 함으로써 훗날 미래의 나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 진로에

대해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유 ○ 민

먼저, 법률소비자 연맹이란 집단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접하면서 처음에는 '봉사점수'를 채울 수 있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활동들은 저에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법률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판례 리서치'였습니다. 이 활동에서 가장 좋은 점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최종판결부터 2심, 1심까지 판결의 시초와 끝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에서 3심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 '2심 파기 및 2심 고등법원으로 환송' 등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3심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결국 1심, 2심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3심까지 간 것이고, 사실 그 전 판결들이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3심이 독자적인 위치에서 판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나 해당 활동에서는 1심 2심 3심 모두의 쟁점과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지 분류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만큼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이 법정 최소한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고, 부가적인 추가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함을 주장과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1심 판결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2심에서는 피고가 원초적인 부분부터 파고들어, 과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성'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항소하여 1심의 판결과는 상반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서 법정 싸움이라는 것이 쟁점을 어디에 맞추어서 상대의 자격 요건을 짚는 전략이 있다는 것, 이를 통해 1심과는 정반대의 승소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면서 법률가의 리얼 마인드가 무엇인지 느꼈고, 이를 어떻게 법정에서 활용하는 눈과 감각을 길러야 하는지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연방상원 매뉴얼에 관한 번역봉사 역시 단순히 파파고나 구글번역처럼 프로그램을 활용해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접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것이 부딪혀보고 직접 경험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막상 이러한 프로그램에 넣어보고 이를 원문과 대조하여 보면, 그동안 판례나 법률 신문, 법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봤을 때, 정말 이런 뜻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단순히 '봉사시간'을 위해 달려가려 했던 제가 이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이루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경험이란 자기반성에 대한 경험이란 제가 이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일에 접근하는 제 모습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을 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가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작성하면서 잘못되었음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기반성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과 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낍니다.

○ 광운대학교 법학과 육 ○ 정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무척 의미있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법과 관련된 여러 강의를 수강하였지만, 이론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법이 실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외 봉사활동을 통해 실제 법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를 경험해보고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로 4가지 활동이었습니다.

첫번째로, '판결문리서치'는 1심에서 3심까지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어떤 법적근거를 채택하고 기각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 법학부로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사건의 판결문을 읽고, 쟁점을 분석해보았지만 재판당사자부터 시작해서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직접 정리해보고 사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의 각 판사마다 쟁점에 따라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법리 해석의 유연성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사의 판결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고자 노력했으며 이는 설문을 작성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판결문리서치를 하면서 재판당사자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힘들었지만, 여러 번의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했던 법률용어가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길고 복잡한 판결문을 스스로 분석하면서 판결문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는데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재판을 접해보고자 민사 법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방청한 재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여금 소송 재판이었습니다. 이는 대리인 없이 나홀로 소송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재판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던 재판장이 드물게 연성을 높이며 피고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재판장은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피고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법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 중 하나인데, 법정 견학을 통해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들을 실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무에서의 경험은 그 이론을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본 법정은 무척 엄숙하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정은 공평과 정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이기에 그 안에서는 모든 행위와 발언이 중요하게 다뤄지며, 법과 관련된 일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데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의정모니터링'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분류하는 활동이었는데 이를 통해 체감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훨씬 많으며 이 공약 중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2명의 국회의원들은 지하철 개통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다수 신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임기인 4년 이내에 완전히 이행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치 결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단순히 투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의정모니터링'과 더불어 법률이 필수 활동이었는데, 이를 통해 최근 법적 이슈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든 설문지가 아니라 설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바로 확답을 주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 설문조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설문지를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한 후 조사 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활동을 마치며, 저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

던 분야인 법학에 대한 현실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무척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명감과 의식을 한층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첫번째 봉사활동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법학 지식을 더욱 쌓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윤 ○ 윤

로스쿨 입시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과정에서, 선배의 추천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겨울학기 봉사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1) 법정치의식 조사, 2) 미국 사법 및 절차법 번역 봉사, 3) 판결문 리서치, 4)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약 분류 활동이었다. 나는 이 중 판결문 리서치를 가장 흥미롭게 참여했는데,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일본의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결과, SK하이닉스와 이천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소송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두 종류의 판결문을 조사했다. 먼저 한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는데,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롭게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2012년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로서는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2018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평소 일본의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 강제 징용 건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언론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념을 떠나 법적으로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 책임의 지속성과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인 판결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하이닉스가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세금 78억여원을 환급해 달라는 행정청구를 지자체가 취소한 건에 대하여 SK하이닉스에서 제기한 행정 소송이었다. 2014년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R&D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법인세 이월공제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청구 취소 처분을 내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법이 개정되었을 때 법 적용대상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을 경우,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이를 명료하게 만든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이 ○ 인

우선 한 학기 동안의 춘계봉사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뿌듯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봉사 활동 초기에는, 제가 법학을 전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법과 관련된 봉사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한 걱정이 무색하게 목표 했던 시간도 잘 채우

고, 결과물도 생각한 대로 나와주어서 봉사가 잘 마무리 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뿌듯함에는 활동을 잘 마무리 했다는 것 뿐 아니라 제가 스스로도 사회의 법률적 영역에 기여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이 사회에 법률적인 영역에 무언가 기여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로 재판의 과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정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적법절차원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제 스스로가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학교에서 법학에 대해 배우고, 특히 소송법에 대해 배우면서, 재판의 과정을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송 과정에 대해 와닿게 이해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소송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법률 지식을 얻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봉사라는 점에서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봉사라고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봉사 활동 중에 하나는 일본의 통신수사에 관한 법률을 번역한 번역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마침 이번 학기에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있었고, 통신수사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통신수사에 관한 법률을 번역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통신수사에 관한 법률 양 자를 비교하여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배우게 되는 등 법률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는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언어 분야인 일본어에서 제 역량이 이렇게 봉사의 형태로서 전환되어 기여될 수 있었다는 점도 뿌듯했고, 이번 경험을 계기로 일본 법률에 더 관심을 가져서 많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여러 봉사활동은 올바른 법치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는 점,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법률적 지식의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의미 있고 뜻깊은 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에 참여하면서 법치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률적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이 ○ 겸

평소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던 분야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 봉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번째 법률 봉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던 할수록 배우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결문 리서치를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번 학기에 처음 판례 분석할 때는 너무 낯설고 어려워서 최소 15시간 이상씩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는 분석하는데 조금 더 더디었던 시간이 줄었고, 내용을 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판결문을 가까이서 접해 보니 지식 습득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하나씩 접할 때마다 새로운 생각과 시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판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나가야 좋을지 생각하면서 법조인이 되어 법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내가 도움이 되고 싶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판결들이 달라지는 걸 찾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을 많이 리서치 했는데 주변에서 불법한 사건들 혹은 흥미를 끄는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판결에 대해서 생각해봄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법률 봉사는 저에게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준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이 ○ 숭

이번 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선배님께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겨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였으며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활동이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비롯하여 판결문 리서치 활동과 법번역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판결문을 읽고 사건의 쟁점과 판결요지 등을 분석하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제게 있어 법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법률 해석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건이라도 판사의 관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 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평소 '실제 판결문을 읽어봐야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통해 생각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법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 또래의 젊은이들이 법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게 되었고,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에 이를 한데 모으는 정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활동인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이번 총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선거공보를 처음으로 유심히 보았습니다. 각 의원들의 공약은 생각보다 매우 많고,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공약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라, 어떤 의원이 공약을 잘 지키는지도 마음만 먹으면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해 줄 대표자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향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앞으로의 법률 공부와 사회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서강대학교 철학과 이 ○ 은

저는 학창 시절부터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마친 지금의 저로서 그 꿈들을 돌아보면, 어쩌면 너무나도 막연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란 우리의 일상 어디에나 스며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 사회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법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법이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고 활용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법정에 방문하여 재판에 참석한 경험도 없었고, 법조문이 담긴 법령을 제대로 읽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법률연맹 봉사활동은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조금이나마 구체화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 좋은 경험이 되어주었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중 하나는 사법 감시 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법정에 방문해 본 적도, 특히나 재판 현장에 직접 참석해 본 적도 없는지라 법원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처음으로 놀이공원을 방문한 어린아이처럼 무척이나 들뜨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구조로 생겼고, 재판장 앞에 부착된 사건들에 관한 설명을 둘러보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사건들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재판을 모니터링하기 전까지 제가 아는 재판장의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상상 속의 모습에 불과했기 때문에 변호사와 검사의 열띤 토론, 판사의 냉정한 판결 등 드라마틱한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관찰하면서 예상 밖이라는 생각과 함께 역시 직접 재판을 보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양측이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이 채택되는지, 어떤 종류의 증거와 변론이 오가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배심원단 활동을 하면서 모니터링한 사건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한 사건으로, SAT 저작권에 관한 건이라는 점, 내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이라는 불법 수색 여부를 다루는 문제라는 점 등에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법과 어떻게 연관되어있고, 법이 이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연방상원매뉴얼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전을 분석적으로 읽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도 분석해볼 수 있었으며, 미국의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법, 정치의식 조사를 통해서도 저와 비슷한 또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이나 정치에 관한 의식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성별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법, 정치에 관해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각보다 법, 정치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관심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 정치 의식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시급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후 진행한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분석 활동을 통해 저의 법, 정치의식 역시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경험만 많은 활동들을 통해 법조인이 되겠다는 저의 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그를 위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해야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 되고 난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해야 할지에 대해 더 가시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이 ○ 정

본 2024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있어서, 본인은 오리엔테이션 교육, 2024년도 청년 법과 정치의식 설문조사, 의정 모니터링, 민사, 형사, 행정 분야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활동들 중에서 언제나 가장 흥미로웠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본 학기에도 중점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학기들과 다르게 본 학기에는 행정 분야에서 나아가 민사, 형사 분야에 대한 여러 판결문들에 대한 리서치 활동들을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들은 단순한 봉사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법, 정치 분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의정 모니터링으로써는 본인의 지역구와 유사한 지역구와 본인과 무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약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본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의원이 재선인 경우, 지난 임기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임기의 공약들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공약을 보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역구 내의 동 등의 소규모 단위에서 이를 다시 분류함으로써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관점으로 공약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분석활동을 통해 공약에 대한 세세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짐으로써, 보다 비판적으로 사고 및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멀게

만 느꼈던 정치 분야에 대해 본 활동은 국민으로서 감시 및 감독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2024년도 청년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 또한 법과 정치 분야에 대해 다소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과 정치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본 봉사활동들을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정학도로서 기존에는 판결문 중에서도 행정 분야에만 국한하여 관심을 가졌었으나 본 학기에는 민사, 형사 분야로도 이를 확장하여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의 사건들이 저마다 각 분야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음을 다양한 분야의 판결문을 리서치 함으로써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 형사 사건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 행정사건의 경우 국민에 대한 국가 영향력의 적법성 여부를 주된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분야의 판결문들을 비교하며 조금씩 이러한 중점들의 상이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행정 분야에만 국한하였던 이전 학기의 리서치 활동들과는 색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활동을 통해 각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뿐만 아니라 원심판결까지 세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재판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 학기에는 최근 뉴스를 통해 화제가 되었던 사안들과 관련하여, 종래의 판단과는 변화한 대법원의 입장들을 살펴보아 매 리서치 활동들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서 법질서의 기준 중 하나인 대법원의 견해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성을 띠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법, 정치 분야에 대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본 활동들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이 ○ 군

이번 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약 분류와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률과 공공정책에 대한 나의 관심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행한 활동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약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조사하고 분류하면서, 공약이 어떻게 구성되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공약은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분석하면서 정치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약의 분류 과정에서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함께 평가하며 분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제 지역구에만 관심을 가졌었으나, 타 지역구를 분석하며 어떤 공약들이 제안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판결문 리서치는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쟁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률 용어와 판례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은 특히 보람찼습니다. 법률은 일반인에게 종종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쓰는 작업은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구체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제가 기존에 관심가져왔던 분야인 해상(海上)법 영역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리서치를 진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분야다 보니 다각도로 사건을 검토하고 더 깊게 판결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판결문을 분석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 요지 정리와 관련 기사 스크랩 작업도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를 정리하면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건의 맥락과 사회적 반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지식을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관들의 논리 전개 방향을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변호사들의 전략과 법률적 접근 방식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각 사건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들과 같은 법조인들이 어떻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분석하면서 실무적인 법률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법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법률과 사회에 대한 나의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법률 분야에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타인에게도 꼭 추천해 주고 싶은 만큼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이 ○ 경

이번 봉사활동은 크게 세 가지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두 번째로 의정보니터링, 세 번째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각각 느낀점이 많았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서는 대학생들의 법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미비를 느낄 수 있었고, 의정보니터링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판결문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개선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서는 대학생의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불문위로 취급되어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알아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법에 대한 인식도를 알 수 있었는데 선거구제의 종류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점이 놀라웠다. 법과 정치를 고등학교때 배워 선거구제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나와 달리 절반이 넘는 친구들은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알지 못하여 설명해주어야 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법·정치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활동이었고, 고등학생 때 필수 과목으로 법과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평소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어, 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악법도 법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한 활동은 의정보니터링이었는데,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은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써 투표를 꼭 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후보자들의 표어와 정당만을 보고 투표를 한 것 같다는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우리나라의 지나친 정당 중심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였는데, 나도 무의식적으로 정당만을 생각하고 투표를 한다는 생각이 자기반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되다 보니, 의정보니터링을 진행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은 성주시와 문경시 두 개의 시를 함께 대표하였다. 이전에는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를 분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공약이 다소 많아, 이 공약들을 다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

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세 번째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판결문 자체를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고, 판결문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판결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으로 평소 법을 전공하면서도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판례만을 보고, 판례의 결론만 기억하기에 급급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수 있었다. 판결문이라고 함은 평소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법적 용어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고, 줄글로써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관계, 판결요지, 주문등이 정리되어 기재되어 있었고, 어려운 법적 용어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판결문이 읽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판결문 검색이 어려워 접근이 쉽지 않는 이유도 아니고, 전문적인 법적 단어가 많아서도 아니고 정리가 미흡한 것도 아닌, 문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장이 '~고' '~하며' 등의 조사를 통해 계속 연결되어 문장 끝맺음이 없다보니, 이해하기 다소 난해한 문장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판결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장을 끊어 읽기 용이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한 시민으로써 정치, 사법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덕분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깨닫고, 정치, 사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내 손으로 민주주의의 참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뜻깊은 시간이었다.

○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이 ○ 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두번째 봉사활동을 마치며 소감문을 쓴다. 학교 생활과 병행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끝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집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고, 법 관련 지식을 쌓기에도 아주 좋은 활동이므로 지난년도 겨울에 이어 이번에도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의 필수활동은 의정 모니터링과 법정식 의식조사였다. 의정 모니터링은 지난 4월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이었다. 내가 사는 지역 외 국회의원의 공약은 솔직히 볼 일이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다른 국회의원의 공약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공약을 100개 가까이 내세운 국회의원도 있었고, 30개 이하인 국회의원도 있었다. 공약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이 공약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 국회의원들이 이 공약을 실천하고 완성시키는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서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국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선거만 한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 또한 국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법정치 의식조사는 설문지를 주변에 돌리고 결과를 걷는 활동이었다. 설문지의 내용이 생각보다 진지하고 내밀한 내용이라 조금 놀랐다. 이 활동을 계기로 친구들과 평소엔 잘 해본 적 없는 정치 이야기와 자신의 생각 등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정치 성향은 보통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므로, 이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정치 성향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필수 활동과 별개로 진행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지난번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한 이유는 집에서 할 수 있고, 판결문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학과에 재학 중이기에 생각보다 판결문 전문을 읽을 일은 잘 없다. 보통 중요한 부분만 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문 전문을 요약하고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도움 되었다. 수업에서 배운 법을 다시 상기시켜볼 수도 있고,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가 생각해보며 리걸 마인드를 키울 수도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여태 진행한 활동에 대해 느낀 점을 적어보았다. 모든 법학과 학생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꼭 추천하고 싶다. 봉사활동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면 정말 의미있고 어렵지도 않은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에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소감을 마무리했다.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 ○ 린

2023년 말,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으며 다음 해 봄학기에 봉사자 모집 시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스쿨에 관심이 있어 관련 활동을 찾아보던 중, 해당 봉사활동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봄학기 동안 필수 활동인 법정치의식설문조사와 의정모니터링, 이외에도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치의식설문조사의 경우, 주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정치의식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주변에게 설문조사를 돌리면서 저 또한 저의 법정치의식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저조차도 해당 설문조사에 설사리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주변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본 결과, 하나같이 설문조사 질문에 대해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으며, 현대의 대학생의 법정치의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라도, 대학생들이 자신의 법정치의식 수준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들었던 설문조사 활동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은 배정받은 안호영, 양문석 의원 외에도 추가로 김동아, 김원이 의원을 모니터링하여 총 4인의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배정받은 의원 이외에도, 직접 투표했던 선거구의 의원과 이전에 살던 곳의 의원에 대한 공약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들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총 7회 진행하였으며, 제가 활동했던 봉사활동 중 저에게 가장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재판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에 방문할 당시에는 법원 방문 자체가 처음이었기에 긴장과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재판 자체에 방청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으며, 갈수록 편안하게 재판을 보러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다녀왔으며, 민사재판부와 형사재판부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에서보다 형사재판부에서의 모니터링이 훨씬 수월하였으며,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많아 집중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재판부의 경우, 훨씬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원고의 수가 많아 판례 자체를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판례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통상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해당 산정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어 유익한 리서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유증결격사유와 부정행위, 그리고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시기상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액수가 시기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를 통해 법적 논쟁에 있어 정확한 시간구획이 상당히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활동했던 교외 봉사활동이기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피드백을 받으며 진행 방식에 대해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내용들이 미래의 저에게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유익했던 봄학기 동안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름학기나 가을학기 중에도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 이 ○ 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등 다양한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느껴져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 참여한 봉사활동은 청년 및 대학생 법정치 인식조사,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 조사로, 4가지 활동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전 대학교에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었고 지금은 법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전반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가장 먼저 진행한 청년 및 대학생 법정치 인식조사를 통해 생각보다 대학생들이 정치와 법에 관심이 많다고 느꼈고, 정치와 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외교학과 학부생이었지만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정치 전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꼈다.

여러 활동 중 가장 도움이 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는데, 이번에 리서치 한 판결문은 대법원 2016다210474 판결로 주요한 법률상 쟁점은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이다. 처음 판결문 리서치 매뉴얼을 전달 받았을 때는 막연히 어렵고 양도 많아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판결문 리서치를 끝내고 나니 민법총칙부터 채권총론과 채권각론, 민사소송법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쭉 정리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1심과 2심에서 문제가 된 법적 쟁점이 무엇이고 왜 3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과정이 특히나 유익했다. 아직 형사법을 배우지 않아서 혹시나 형사사건 판결문을 리서치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본인인 원하는 판결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심 있는 주제의 민사 사건을 신청하고 리서치를 진행했다. 리서치를 희망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활동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다.

다음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다.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민사, 형사, 가사 등 원하는 재판부를 재판을 방청하면서 모니터 관찰사항과 사건 내용을 기록하면 된다. 관찰사항은 주로 판검사와 변호사의 태도 및 해당 법원 전반의 시설과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모니터링을 하러 법정에 갔을 때 생각했던 법정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꽤나 신기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몇 회에 걸쳐 속행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많게는 여덟 사건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많은 사건들을 모두 담당하는 한 명 혹은 세 명의 판사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도 신기했다. 당사자들의 말을 끊는 판사, 마치 당사자처럼 사건에 몰입하는 판사, 형식적으로 변론하는 변호사, 엄청나게 피곤해보이는 검사 등 다양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을 보았다. 물론 재판당사자들도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은 피고인, 현란한 말솜씨로 판사를 설득하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등 다양했다.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일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법정에서 원활히 피력할 수 있도록 판사 혹은 법원 측의 충분한 설명과, 당사자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가장 가까워서 법정을 지켜보며 법조인이라는 꿈을 구체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입시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처음과 달리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내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었는지,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었고, 내게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같은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 권유하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 ○ 현

저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관심사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갖춘 사람입니다. 도전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 도전에 따르는 경험을 온전히 저의 것으로 만들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겨울에도 자원봉사자로 다시 한 번 지원하였습니다. 겨울학기에 봉사활동을 해 보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보람있었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겨울학기에는 방학 중이라 시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기 중이기도 하고 리트 시험을 준비하다보니 시간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지난학기 봉사활동 중 가장 뿌듯했던 번역봉사 활동만큼은 또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났습니다.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조금씩 번역을 하다보니 갈피를 어느정도 잡을 수 있었고, 점점 미국연방 상원 매뉴얼에 대한 관심도 생겨 배경지식을 찾아 읽으며 번역을 하니 더 매끄러운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국어도 아닐뿐더러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부족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 같아 이번에도 역시 뿌듯함이 많이 남는 번역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며 처음에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여쭙어야 하나, 밖에 나가서 해야 하나 아예 길을 못 찾았지만 주변에 널린 사람이 대학생이고, 2-30대 청년이다 보니 받은 설문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글 설문지로 형태를 변환해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설문조사 응답을 받고,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엑셀시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 주변에도 이렇게 다른 정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번학기 자원봉사자로서 했던 활동들 모두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으며 앞으로의 봉사활동 내지 진로 활동에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태함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신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로서는 법률연맹의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한 3개월 남짓한 시간들, 지난학기부터 한다면 6개월이 넘는 시간들이 참 보람차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학기와 공부에만 집중할 수도 있었던 봄학기지만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마음의 양식과 봉사 정신 그리고 법률적 지식 모두 겸비할 수 있었기에 더욱 더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도 법률연맹의 자원봉사자로서 새로운 분야의 봉사활동에도 도전해보며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추진력과 그것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함을 갖추고 싶습니다.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된 지금, 저는 도전정신과 성실함을 더 개발하여 작은 역할이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긍정적인 영향력 그 일부가 되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과정에 자원봉사자로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이 ○ 지

이번으로 3번째 법률 봉사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작년 2학기 처음 알게 된 후 계속해서 신청해 진행하게 되었는데, 매 분기마다 새로운 활동이 생겨서 매번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며,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봄학기 활동에서는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찾아 정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두개 다 국회의원의 임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활동인데 운이 좋게도 둘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선거를 하면서 선호 정당의 국회의원을 뽑거나, 이미지가 좋은 사람을 뽑는 등 국회의원의 공약을 확인하며 뽑지는 않기 때문에 공약을 찾으려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군, 도시를 묶어서 국회의원을 뽑기도 해서 그런지 공약이 거창하지는 않고, 구마다 도서관을 설치한다던가 공용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등의 숫자 채우기에 불과한 공약이 많아보였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법정치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설문

조사의 경우에는 내용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들이 많아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보지는 못하고 친한 친구 몇몇에게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질문들이었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사할 수 있었을텐데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전에는 사건 관계가 명확한 형사 사건 위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행정 사건과 민사사건도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특이했던 사건은 손해배상인데,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학생의 친모가 7년만에 자식의 사망 사실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한 경과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해 국가를 상대로 친모가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특이한 내용이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찾아보며 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늘어 뿌듯한 활동이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이 ○ 성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았을 때, 저의 대학생활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애매하게 보낸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입학할 하게된 20학번인지라, 비겁하게도 핑계를 댈다면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못하다보니 도전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너무 좁아졌고 황금기 같은 대학교 1~2학년을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이런 저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워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학교 생활과 다양한 경험들에 충만하게 나 자신을 던져보자, 하고 시작하게 된 것이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이제 제법 성숙해져 사회인으로서 바로 설 나이가 되었음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무지함이 부끄럽다고 느껴졌고 잘 모르기에 더더욱 이 봉사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법률소비자연맹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활동인 OT부터 봉사 참여자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정말 명예로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OT 자료를 메일로 전달받고, 공부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권리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 보호받길 원하는 사람에게,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 자신이 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나에게 만든 떡을 입에 넣었다 주기를 바라며, 심지어는 땀방 부리며 세상 탓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니 저의 봉사가 저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정말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제가 하는 역할에 상당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후에 이뤄진 봉사활동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언론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의정보니터링입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의정보니터링은 이번학기 필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먼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내용부터가 어려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선뜻 건네도 될까? 하는 생각에 적어도 저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설문조사에 나온 모르는 내용들을 혼자 검색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또한, 내향적이고 좁고 깊은 관계만을 구축해 온 저로서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간관계의 질과 양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활동은 가장 고난이도의 활동이었습니다. 10대일간의 사실 내용이 정말 방대하기에 스크랩하기부터가 까다롭고 신문이라는 것을 읽지도 않는 저에겐 너무 막막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처음 가본 법원에서 재판이 제대로 잘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법원의 위엄과 법원 내 직원들의 태도에 상당한 위압감과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소감문을 쓰고 보니 다 어렵고 힘들다는 내용만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와 정치에 대해 배우고 독립심과 자주성 등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과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이

런 좋은 기회를 주신 연맹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로스쿨이나 법조계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제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 4년간의 대학 생활 중에 가장 뿌듯했던 활동 중에 꼽으라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뽑을 것입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이 ○ 안

법률소비자연맹 2024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알게 된 것은 진로와 관련된 저의 첫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법 관련 진로에 목표를 두게 된 이후 리걸마인드를 향상시킬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 언론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매년 적극적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법 관련 봉사활동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사법 감시배심원단 활동, 법·정치설문조사 및 언론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법 감시배심원단은 평소 법원에 그냥 참석해 방청한 것과는 달리 사뭇 진지한 느낌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저 사건을 듣고 판사·검사·변호사님의 발언을 들으며 방청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시민으로서 법정에서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조금은 무겁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 감시배심원단으로 활동함으로써 재판의 구성을 조금 자세히 엿볼 수 있었고, 판사·검사·변호사가 법정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를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이 한 개인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곳인 만큼 사법감시배심원단의 필요성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법정치설문조사 활동은 평소 관심있게 살펴볼지 못했던 정치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한 흐름 파악 및 기본적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당연히 언론모니터링입니다. 이슈에 관한 언론을 특정 기간동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슈를 그저 스쳐 가는 뉴스로 읽는 것이 아닌 직접 사안을 분석하고 언론사의 보도경향을 살펴보면, 참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더욱 사회 이슈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률전문가를 희망하는 저에게 무척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활동을 수행하는데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이 ○ 연

저는 최근 법 관련 직무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이에 흥미를 가지고 알아보다 2024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고 회신문을 작성하면서 하였던 다짐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받을 디딤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문과 진행 과정을 명료하게 탐색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보내주신 방식을 따라가다보니, 의외로 판결문을 고르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주요판결은 매우 방대한 양이었는데, 그 중 저에게 적합한 건을 고르는 것이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양식 작성을 위해서는 판결 요지 등 비교적 잘 정리된 판결문을 고르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 될 거라 생각하여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존 저의 직무였던 해운업 분야에서 법 직무에 관심을 지닌 이전 날을 떠올렸습니다. 선박을 운용하다보면 화물 미선적, 대급 미납, 화물 파손 등으로 다양한 분쟁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닌 이상 일 년에 몇 건씩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는 직원들의 방대한 업무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포워딩 회사는 법무팀이 제대로 마련되지 힘든 상황이기에, 비전공자인 이들이 실량이

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이를 도와가며 속이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관련 업무를 완벽히 해내 해운업 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화물 파손 관련사례를 위해 찾아보았던 판결문에 대해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제 생각보다 난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기존에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사건을 정독하고, 중요한 부분, 모르는 단어부터 판사 및 변호사의 프로필까지 세부적으로 찾아보는 과정이 신경을 많이 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리서치가 마무리 될 때에는 제게 얻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법률 용어도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 정말 내 것으로 체화할 수 있었으며, 판결요지를 직접 요약도 해보고,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찾아내면서 이 분야와 한층 가까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생한 만큼 많이 얻어간 활동이었습니다.

번역봉사도 제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미국 상원 매뉴얼에 대해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위해 배경지식을 쌓고자 상하원 매뉴얼에 대해 학습도 해보고, 앞뒤 맥락을 확인하며 다의어중 어떠한 의도로 작성된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법률 지식과 영어 실력도 한층 성장한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활동 두 가지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로 법정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보다 주변과 총선 관련한 대화도 많이 나누어보고, 저의 설득을 듣고 투표를 하러 간 지인도 있어 개인적으로 뿌듯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를 마치고 엑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이 몰려있는 지도 알 수 있어 추후 법정치쪽 직무를 행한다면 이러한 자료 활용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하는 미래 직무에 대해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필수 활동은 국회의원 공약을 정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선거공보를 보고 당선인의 공약을 정리하는 활동이었는데, 기존에도 선거 공보가 오면 꼭 읽어보고 공약을 궁금해하는 주변인에게 각각 관심이 있을법한 공약을 추천해주는 제게 꼭 맞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정리하였고, 활동하면서 제일 즐기면서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의외로 선거 공보를 책자로 읽어 보는 것과 사이트를 통해 PDF로 한 자 한 자 읽어 내리는 느낌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공약을 정리하다보니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지 에 대해 세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공약이 많은 국회의원도 있는데 추후 공약이행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깨워준 활동이었습니다.

3개월이 채 안 되는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실제로 얻어가는 것이 많아 뿌듯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기에 첫 시작 및 방식 이해가 완벽히 이루어지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쏟은 시간만큼 제가 성장한 게 느껴져 보람찬 봄학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참여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 홍익대학교 법학부 이 ○ 석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의 일환으로 2024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지만 활동 종류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나에게는 모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이었고 실제로도 꽤 몰입해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활동을 직접 해보니 처음 예상했던 대로 모든 활동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활동을 모두 마친 현시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시간이 아까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 전부 나에게 있어 의미있는 활동들이었고 나와 같이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봉사활동이었다.

이상이 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나의 소감이었고, 밑으로는 각 활동들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글을 마치겠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재판을 방청해 보았다. 재판을 방청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생각보다 더 기계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수개의 재판에 참여하고 여러 명의 재판 당사자들을 접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기계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할 것이다. 또한 감정적으로 재판에 임한다고 해서 재판결과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니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더 옳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미디어에 노출되는 열정적인 모습의 판검사 혹은 변호사를 보고 재판을 방청하러 오는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약간의 괴리감이나 실망을 느끼게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사실 위 내용이 법정 모니터링의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냐는 생각이 들었는가 일 것이다. 사실 나는 우리 사법체계에 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대중이나 미디어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못 믿을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방청한 모습도 그렇게 보였다.

다만 국민들이 불신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법부가 고수하는 논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관심이 없었던 의원들의 공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깊었다. 각각의 의원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공약을 가지고 있었다. 추후에 다른 분들이 봉사활동에서 공약을 이행했는가를 조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들었는데 최소한 내가 분류한 의원들은 모두 공약을 잘 이행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이번 봉사활동 중 가장 많이 수행한 활동이다. 개인적으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중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의미있는 활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판결문은 그 자체가 법률 전문가들이 작성한 양질의 법률 텍스트이다. 따라서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법률과 재판에서 사용되는 논리까지도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에게도 의미있었고 타인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었다.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 ○ 서

평소 NGO 단체에 깊은 관심이 있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법률전문 NGO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활동을 하며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의정모니터링, 번역 봉사활동, 그리고 사법 감시 배심원단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로서 처음 참여한 활동은 사법 감시 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가서 재판을 참관하는 것은 매우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 1층에서의 소지품 검사부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재판장의 분위기까지, 미디어를 통해서만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두 명의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유권자로서 국회의원의 공약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본 것은 처음이었으며, 공약의 양이 생각보다 많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뇌의 흔적들이 보여 놀랐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 선거공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기뻐했습니다. 번역 작업을 통해 법률 용어 등 전문 어휘를 배우는 동시에, 제 전공을 활용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해보지 못했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기 중보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동안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봄학기 봉사활동 중에는 해보지 못했던 다른 봉사활동들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 ○ 원

2024 봄학기 봉사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나의 첫 봉사활동이었다. 나는 법에 관심이 많고, 바람직한 법적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장래에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의 많은 추천을 받았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과 취지가 인상 깊어 해당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여러 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그동안 학교에서 법과 관련된 과목을 여러 차례 수강하고, 교내 법학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분석해본 경험은 없었다. 판결문 자체가 너무 길거나 어려운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걱정이 앞섰으나,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천천히 정독하고 나니 생각보다 큰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이에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몇 번 더 해보기로 하였고, 총 4번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 판결문을 선택할 때는 내가 배웠던 법지식이 쟁점에 적용되어 있거나, 뉴스나 기사를 통해 접한 적이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래서인지 판결문을 읽는 게 재미있었고, 리서치 활동을 끝낼 때마다 관련 법적 쟁점이나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많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4번의 활동만으로도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았던 활동이었다. 어렵게만 느껴졌고, 편하게 읽기 힘들었던 판결문이 활동을 거듭할수록 비슷한 단어와 문장들이 보이고, 전체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석 속도도 점점 빨라졌던 것 같다. 또한 법관들이 쟁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흐름이 익숙해졌다. 그렇기에 법과 관련된 활동이나 수업에 자주 참여하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전에는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법관의 판단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작정 비판만 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결론에 대해서만 비판하기 전에 관심 있는 사안이 있다면 판결의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사실 이번 학기에 개인적인 활동이 많아 학교생활과 봉사활동을 병행하기에 조금 벅찬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많았고, 3개월 동안 꾸준히 법적 활동을 하며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법이라는 학문에 더 친숙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번에 또 봉사활동을 신청한다면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 번역 봉사도 매우 기대되는 활동 중 하나인데, 번역 봉사를 통해 해외의 법 구조와 체제에 대해 배우고 우리나라 법과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유익할 것 같다. 끝으로 이런 유익한 활동을 기획해주시고 제공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번 봉사활동을 기약하고자 한다.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임 ○ 령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아보게 된 것은 법률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여러 후기들을 통해 봉사를 하면서 제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학년이라 시간내어 봉사활동을 하기 쉽지 않았는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은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언론 모니터링, 그리고 의정 모니터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신청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게 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는데, 어렵다는 후기가 많아서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는 방식이나 검색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해주신 덕분에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한 판결문은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2018도16002 강간(준강간) 판결문을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원이 어떠한 논리적 근거와 법리를 통해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두37858 판결에서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심도 있게 검토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법률적 사고력과 논리적 분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법률이 단순한 규칙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이어가던 중, 직접 검색하고 정리해보던 판결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주장하는지, 그 주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진행되며,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관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인상깊었으며, 검사와 변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증거와 논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법적 해석을 제시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점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 다양한 분야의 개선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가 단순히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송재봉 국회의원이 제시한 공약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공약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지역 시민의 입장이자 생각하고 공약을 분석했을 때, 지역 홍보와 더불어 공약대로 이행이 된다면 생활환경에서 편리한 점이 많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법률과 정치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정의와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갖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봄학기 봉사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법과 정치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임 ○ 민

작년 가을학기에 이어 올해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끝이 났다.

졸업 학년이라 신경 써야 하는 활동이 많았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다른 대외활동들을 선불리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속상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학기에 유익하게 했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생각나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

저번 학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필수 활동이 변경되었다. 이번 필수활동에서는 설문조사 및 국회의원 공약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이었지만, 각 정당

의 주요 이념과 정책만 알고 있는 편이었지,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공약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계기로 개별 국회의원의 세부적인 공약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활동을 제외하고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공약을 검색해보고 관심할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번역 활동 및 판결문 리서치는 지난 학기에 이미 경험을 해보았던 활동이라 그런지 시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번역 활동에 있어서는 번역 페이지 수를 더 늘려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난 학기보다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해석하는 거에 거부감이 없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에 있어서는 지난 학기에는 사실관계 파악이 쉬운 민사사건 위주로 진행하였던

이번 학기에는 민사, 형사, 가사등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난 학기에 비해 판결문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어서 뿌듯했다.

두 번의 봉사활동 모두 학업과 병행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아쉬움이 크게 남았다. 그렇기에 신청을 해둔 여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은 물론이고, 지난 가을학기에 인상적이었던 법정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뜻깊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법률소비자연맹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임 ○ 수

2024년 봄학기 봉사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첫 봉사활동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법학과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과 동기가 법률소비자연맹봉사활동을 추천해주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생각했던 분야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였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의정모니터링을 포함해 판결문리서치, 법정모니터링, 번역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 저는 필수 봉사활동과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의 내용은 평소에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지만 실제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 설문조사에 있던 내용들이 의정모니터링 활동이었던 국회의원 공약 분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진행한 활동들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한 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직접 지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는 것인데 저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방청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상해와 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도 있었고, 성매매알선 등과 같은 사회 풍속과 관련된 범죄도 있었습니다. 형사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음주운전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더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 역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한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이처럼 증거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더하여 사법절차를 준수해 재판에 임한 재판당사자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네 번의 판결문리서치를 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대법원 2018다3036537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원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인 상고심까지 어떤 법리와 쟁점을 중점으로 다루었는지 알 수 있어 사건을 파악하기 수월했습니다.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들과 대법관들은 해당 사건을 정확한 법리를 적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였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 관련 기사를 찾아볼 때

피해자들은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늦게나마 피해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의 경우 우리의 생명과 재산 등 법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더하여 저에게는 앞으로의 법의 역할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경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조인이 되어 어떤 자세로 사건을 다루고 보아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을 다루어 그 안에 있는 법리를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재판절차, 법원의 역할, 재판당사자의 역할 등 여러 재판과 관련된 정보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고,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해 더 깊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위 활동들은 틀림없이 저의 미래에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판결문리서치 결과물, 법정모니터링 결과물을 확인해주신 담당자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장 ○ 정

일상생활 속 법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던 차나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신청했다. 대학생으로서의 첫 법률 관련 봉사활동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찬 경험이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크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봄 학기 동안 내가 수행한 활동은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조사,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관한 판결문 리서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류,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불법성 논란 보도 경향 분석이었다.

처음으로 진행한 활동은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조사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위 친구들의 법률 및 정치의식을 탐구하는 일은 매우 흥미로웠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청년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특히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주위 친구들과 법/정치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련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었다.

다음으로는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실시하였다. 법원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는 것은 처음이었고, 특히 평소 관심 있었던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판결문을 읽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특히 집합투자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법률 조항 등을 공부하면서 금융 관련 법률 지식도 넓힐 수 있었다. 판결문을 읽으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김선교, 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분류하는 작업도 실시했다. 이 작업을 통해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우는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지 평가할 수 있었다. 공약을 분류하면서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유권자로서 정치인들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활동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 논란에 대한 보도 경향 분석이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 80여 건을 분석하면서 각 언론사의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많은 기사들을 분석하는 것이 막막했지만,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두 언론사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서 재미있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 더불어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비판적으로 기사를 읽고 분석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단

순히 법률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법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나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법률가가 되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 ○ 냉

이번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 사람들의 법정치 의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뜻깊었다. 법과 정치가 얹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입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정치라는 점에서 둘은 사실상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느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이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곧 바람직한 정치와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달았다. 국내 정치 속 다양한 리걸 이슈 및 사법 리스크를 잘 알아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잘 작동하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음을 느꼈다. 단지 개인의 리스크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비판할 부분은 마땅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선진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열심히 읽고 정리해보았다. 해당 활동을 통해 해당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각 심급별로 판단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알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 특히 다양한 법적 지식과 법리를 알게 된 것 역시 큰 수확이었다. 스톡킹 범죄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와 기준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지를 판례에서 읽어봄으로써, 스톡킹 범죄 관련 법률, 스톡킹 범죄의 강력범죄화 현상, 스톡킹 행위의 인정을 위한 요건인 '음향과 글의 전달'이라는 기준에 대한 판단 등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던 활동이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원심과 하급심의 판결을 읽는 것 역시 큰 수확이었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과 입장을 달리하는 지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판단을 하였는지 검토하고 비교하며 이해해볼 수 있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해자의 부재중 전화표시가 남는 것에 대하여, 2심에서는 그러한 문구가 표시되는 것만으로 말이 전달되어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문구 표시만으로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말이 전달된 것이며, 그러한 문구 표시에 대한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동일한 쟁점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데 이때 대법원은 2심에 비해 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인정하는 기조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학기 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해 법적 지식을 얻고, 판례를 읽고 이해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보람찼다.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장 ○ 은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법조인이 꿈이었기에 자연스레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던 중 비대면으로 활동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도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봄학기에 처음 활동해보는 거였지만, 필수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의정 모니터링부터 번역 봉사활동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이었던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저와 제 또래의 20대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입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의 하나로 했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분류 활동을 통해 당선자들의 공약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사회 문제에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보니 확실히 당선자

공약 중 노인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공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약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당선 후에 이러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더 중요할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은 제 전공이 영어영문이다 보니 영어 번역을 신청해서 미국하원의사규칙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의회 특수용어를 제외하고는 번역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 언어적 재능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뻛고, 다음 학기에도 번역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제 생각보다 어려웠던 활동인데, 그 이유는 제가 평소에도 법학 강의를 수강하면서 대다수의 판례를 발췌 독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판결 전문 정독을 해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판례 전문을 읽은 후에 쟁점을 정리하고 판결의 근거를 찾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도 판결문을 읽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법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례를 읽고 이해하기가 더 힘든 일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덧붙여 앞으로는 판례를 좀 더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항소심 사건을 보고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재판을 지켜본 것이 처음이었기에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이 해당 재판과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종종 재판을 보러 다니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다른 대외활동도 진행하고 있기에 바빠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여름학기에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2024년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서 정말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2024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이미 신청한 상태인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저에게 잘 맞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활동이라고 생각했기에 2025년 봄학기 정도까지는 꾸준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생각이고, 제 후배들에게도 이 활동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장 ○ 솔

법조인 등 법률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게 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여러 활동들을 쌓아나가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었는데, 우선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부터 실천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해볼 수 있는 봉사활동의 종류가 여러가지인 점이 마음에 들어 봉사활동을 시작해보게 되었다.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였다. 실제 주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우리 모두의 법이나 정치에서의 의식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했었던 터라 흥미롭게 설문조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또래 나이의 친구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의견이 많이 갈리는 질문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하였던 봉사활동은 번역봉사였는데,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과에서 영어를 많이 쓰고 있어 영어 번역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었다. 배정받았던 법은 미국의 상원 매뉴얼을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미국 의회의 상원 체제라는 개념은 나에게 생소했었다.

이 번역을 맡게 되면서 미국 의회와 관련된 배경 지식과 그 체제, 단어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병행하여 번역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을 통해 상원 체제란 무엇인지, 미국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고, 나의 번역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욱 번역을 열심히 완성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이 생겨 매우 유익했던 봉사활동 시간이었다.

세 번째 활동은 의정 모니터링이었다. 지난 4월에 치러

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의 선거활동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을 정리하는 활동이었는데, 선거공보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당선인들이 선거 활동 당시 공보에서 강조하는 분야가 각각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리를 하면서 당선인들끼리 비슷한 공약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공약들이 무엇이었는지, 지역이 다르더라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바라는 공약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꽤 많은 분량의 공약들을 분류했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세운 공약들도 많았던 만큼, 최대한 많은 공약들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활동이었다.

마지막으로 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판결문을 직접 찾아서 본 것은 처음이라, 처음 보는 문서들도 많고 재판 과정 또한 복잡해보이고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았지만, 법조인이라는 직업과 가까워진 느낌이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많은 것을 찾아보며 완성했던 활동이었다.

맡았던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였고,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문이었다. 각 심급마다 쟁점을 정리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립되는 주장이 무엇인지, 각 소송대리인들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 법원은 판결에 대한 이유로 어떠한 판례나 조문을 들어 정리해서 적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봄학기 봉사시간이 끝나고나니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법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억에 남는 봄학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단순히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의미없이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방향이 뚜렷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 의미있게 봉사시간을 채운 활동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법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져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고 싶은 봉사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전 ○ 란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의 비대면 강의는 집을 좋아하는 제게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대면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비대면 생활이 제 사회성뿐만 아니라 자유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추억을 쌓고자 전혀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시작했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법정을 가보고 싶었지만 특별한 명분을 찾던 중 마침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링 활동에 꽂혀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수행한 봉사는 법정치의식조사,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의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의 총 다섯 가지였습니다.

법정치의식조사는 제게 전공의식을 다시 일깨워주었습니다. 배부한 설문지가 답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친구들의 말에 솔찍 본 질문지는 전공이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저의 지식수준을 체감하게 했습니다. 뉴스로만 접했던 젊은이들의 저조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바로 저와 친구들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관심분야 뉴스만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번역 봉사는 토머스 제퍼슨의 제퍼슨 매뉴얼로 진행했는데, 토종 한국인으로서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미국 특유의 정치적 배경과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구조를 어떻게 단원제인 우리나라의 정치 및 법 용어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번역기나 법률용어한영사전에 나온 말로 바꾸기엔 문맥에 맞지 않았고, 사장된 용어나 라틴어 격언 등은 그 뜻풀이도 영어로 되어 있어 결국 한국어로는 만족스럽게 번역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어에는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다는 말을 방증하듯 10페이지가량밖에 되지 않는 제퍼슨 매뉴얼을 번역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회구조와 법 용어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관심 있었던 가사비송사건 두 개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미성년후견인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심판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어떤 의미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자는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패소했으나 3심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같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논리가 이렇게 정반대로 차이날 수도 있다는 것에 신기했습니다. 또 소수대리인과 판사들의 정보를 함께 찾아보면서 단순히 변호사,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라면 어떤 사건을 주로 맡는지, 판사라면 어떤 경력을 거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지까지 알 수 있어 새로웠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읽을 때는 큰 감회가 없었지만, 그 사정이 라디오 사연처럼 밝혀져 있는 사실 기사를 스크랩하고 난 뒤 판결문을 읽으니 마치 제 일처럼 사건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판결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하는 점들을 인식하고, 이전보다 수월하게 쟁점과 논지들을 찾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경태와 장동형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모니터링, 또 저작권(미국수능SAT)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며 정치와 법의 일상적인 감독을 하는 국민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지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 좋았습니다. 위의 활동을 하며 궁금한 점도, 피드백할 점도 정말 많았는데,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수월하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활동하고 싶습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전 ○ 미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된 것은 친구의 추천이었습니다. 함께 로스쿨을 준비하는 법학도로서 사법감시, 판결문리서치, 실제 사법피해자의 사건내용정리 등의 봉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활동은 법정치설문조사였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저에게 질문의 뜻을 묻는 답변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현 정치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설문을 통해 현 20대의 법정치의식 수준과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사법부의 공정성, 법 준수의 의무성에 관한 질문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법학도로서, 그리고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법정치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 법정 참관을 갔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법정에 참관한 적은 있었으나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재판에 참여하는 법조인(검사, 변호사, 판사)의 태도를 중점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논쟁했던 쟁점은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 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ATM 송금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열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재판 중의 변호인의 모습보다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의자에 앉아 몇 천 페이지나 되는 문서를 손에 들고 집중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인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껏 내가 생각했던 법조인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등을 하며 혼자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법학과에 재학하며 일반인보다는 판결문을 정리한 경험이 많았기에 비교적 어려움 없이 쟁점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껏 제가 해온 판결문 정리는 교수님이 정해준 판결을 토대로 했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제가 직접 관심 있는 판결문을 찾아 정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판결문 제공도 신청해보고 꽤 흥미롭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앞으로 로스쿨에 가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번 학기에 실제 사법피해자들의 사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활동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법률연맹 소개에 있는 글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안전, 공의, 발전과 정의, 평화를 저해하는 국가기관 또는 그 어떤 세력이나 기

관의 위법, 불공정, 행태, 부정부패가 제보, 발견되면 공동하여 감시, 고발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건강한 사법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나라의 국민, 그리고 건강한 사법을 위해 노력하는 한 나라의 법조인이 되리라 다짐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영어학전공 정 ○ 윤

안녕하세요. 법률소비자연맹 봄학기 봉사자 한국외대 정 ○윤입니다. 봉사를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봉사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제가 느낀 점들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커뮤니티에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관심이 생겼고, 관련 활동을 접해보고 싶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수 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외에 법정 모니터링, 의정 모니터링, 번역 봉사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번역 봉사는 언어를 정하면 해당 언어의 헌법이나 법률 문서를 배정받고 번역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미국학원의사규칙을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방대하여 막막했는데 하원 규칙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큰 글씨의 조문만 번역하다보니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은 이번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의 선거 공보를 모으고, 공약을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섯 명의 당선자를 모니터링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 후보당 제시하는 공약이 매우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선거 공보를 자세히 보지 않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찬찬히 분석해보니 중복되는 공약도 많고 같은 공약을 단어만 바꾼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과연 공약 많은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50개에서 많게는 120개에 달하는 공약들을 후보가 과연 알고 있을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공약이행률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당선 되었을 때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 방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었는데 저는 총 3번 방문하였고, 9개의 재판부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에 가는 것부터 무섭고 걱정도 많았는데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있고 방청하러 왔다고 밝히면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9개의 재판부를 보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부에서는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법률용어가 생소해서 따라가기에 급급했는데 이후 몇 번의 재판부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 나중에는 순조롭게 재판 전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판사의 태도였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잘못을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재판부에서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객으로 방청석에 앉아있었지만 옆에는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이 앉아있었는데 법을 잘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순간은 피고인도 아닌 피고인의 가족들을 볼 때였습니다. 그 짧은 재판 시간동안 보겠다고 오고 생각보다 형이 무겁게 내려지자 눈물을 쏟으며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여러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찾아서 방청해 보고 싶습니다. 봄학기 법률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 좋았고, 특히 실제로 사법체계의 중심을 경험할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일반 정 ○ 보

사실 분석, 이슈 분석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봉사활동이고 가장 보람찼던 봉사활동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회사 일에 집중하느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정 현안에서 조금 밀려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 각 언론들에서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평소 관심있다고 생각한 저조차 알지 못했던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하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길게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확인하며 우리 농업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치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에 응해줄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지만 우선 응한 사람중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깊게 생각하며 설문에 응해주어 정말 보람했습니다. 매년 설문 내용이 다소 현 정치 상황을 깊게 반영하고 있어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결국에는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어 주었고 특히 기타 항목을 직접 적을 정도로 적극적인 응답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판결문 리서치를 처음 신청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하시며 왜 그런지 여쭙보신게 기억납니다.

화제의 판결 중에서도 최근에 있는 판결들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슈가 된 마약류에 관한 법률등 자극적인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판결의 내용이 흥미롭기도 해서 더욱 인기 있는 판결문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정 ○ 성

저는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주로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의 의사규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선 정확한 법률용어 사용의 어려움과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법률용어의 사용도 이제 갓 걸음마를 댄 일개 대학생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구글 인터넷 페이지를 몽땅 뒤져서 간신히 한국어로 번역된 문건을 찾을 수 있었고, 때로는 아예 찾지 못해 맥락을 통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contribution'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기여의 행위'가 아니라 로비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이번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번역한 부분은 상/하원 의사규칙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지만, 제가 번역한 내용을 통해 타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미국 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상/하원 의사규칙이 한국이나 타국과 다른 독특한 점이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미국하원의사규칙을 번역할 때, 세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기타 법안에 비해 3/5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세법을 헌법 아래의 다양한 법률 중 하나로 보아 일반적인 통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역시나 영국의 과도한 세금징수로 인해 독립한 역사가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한 태도가 보다 엄중하고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원의사규칙의 경우에는 로비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국가인데, 어차피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누가 해당 정치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지 알 수 있게 해서 로비 자체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았습니다. 대신 로비스트와 로비 목적의 접촉 활동은 항상 보고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수백 명의 의회 의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로비접촉이 모두 보고된다 한들 일반 유권자가 그것을 모두 합리적으로 대조하고 투표 및 지지를 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한 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 상/하원 위원회에 더 정밀하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미국 역시 해당 로비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제 봉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저는 청년 법정치인식설문과 당선자 공약분석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당선자 공약분석활동을 통해서 선거 때는 오히려 대중 보고 넘어갔던 선거홍보책자를 더 열심히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국회의원들의 공약 개수는 최소 40개 언저리에서 최대 120개를 넘어갔는데, 이것을 제대로 다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공약 개수를 10개 정도로 제한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원에게 과태료 혹은 차기 선거 출마 금지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가해 신중하게 공약을 선정하고 유권자에게 과다한 약속을 하지 않는 정치풍토를 만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 서강대학교 영미어문학과 조 ○ 재

저는 이번 봄학기 법률 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재퍼스매뉴얼'이라는 법률문을 번역하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엑셀로 정리하는 활동은 단순한 작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재퍼스매뉴얼' 번역 작업을 하면서 법률 문서의 특성과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문서는 매우 정교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법률 문서를 다루는 법조인들의 노고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률 체계와 비교해보며 법률 문서의 국제적 표준과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법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번역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를 다루는 법조인들의 책임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엑셀로 정리하는 작업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저의 이해를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공약을 통해 그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공약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특히, 번역된 '재퍼스매뉴얼'과 정리된 공약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더욱 보람칩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기여의 중요성입니다. 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조 ○ 서

봄학기 봉사활동으로 사법감시비심원단, 언론모니터링, 당선자 공약분석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를 진행하기 전, 법률봉사라는 다소 추상적인 활동이 무엇일까 호기심이 컸습니다. 봄학기 다양한 활동을 하며 법률봉사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가까이에서 관심있게 바라보고, 더 나은 법과 제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건 언론모니터링 활동(10대 일간지 사설분석)입니다. 해당 활동은 일주일간 10대 주요 일간지에서 나온 사설을 모두 취합해 비교분석하고, 나름의 평가를 내리는 활동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매일 약 2~3개의 사설을 게재하기에, 10대 언론사가 일주일 간 게재한 사설을 모두 읽고 각자의 논조를 파악해 비교하는 것

은 계획했던 것보다 어렵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읽어 나갈수록, 각 기사가 하고자 하는 말과 비판하는 지점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유사하게 비판하는데도 다소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이 있고, 책임 주체를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건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있는가하면, 해당 사건을 과거 혹은 현재의 유사한 사건과 엮어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기사도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현상을 긍정하고 부정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같은 부정임에도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사실 분석활동이 조금씩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분석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되돌아보고 종합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활동이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찬 활동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간의 주요이슈는 의대정원 확대와 4월 총선 관련 이슈였습니다. 처음 제 예상과 달리 보수 언론이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진보 언론이 야당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언론사 성향에 구애받지 않는 각 사실의 논조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언론이 사실 제목을 굉장히 숙고하여 짓는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유사한 입장이라도 기사 제목에 따라 언론마다의 미묘한 태도와 온도가 드러나 흥미로웠습니다. 입장을 소개하는 순서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언론의 주요한 입장을 짐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사실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아닌, 사실 기사 자체에 대한 이해 또한 풍부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서 판사, 변호사, 검사가 가지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특히 재판을 이끌어가는 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파악하는 일이 무척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재판 과정과 발언 내용을 정리하며 절차의 공정성이 주는 힘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재판 과정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의 사용으로 많은 이들이 법을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률용어와 개념에 대한 장벽이 더욱 낮아져 많은 국민이 더욱 법과 제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 연세대학교 생명과학학과 진 ○ 윤

고등학교때부터 생명과학학에 매진했던 저는, 사실 그동안 법에 관해 많은 활동을 하거나 생각해볼 기회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와서 교양으로 여러 과목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무지했던 분야가 너무 많았으며, 특히 우리와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법"이라는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 지식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법률 문제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얻는 지식뿐만 아니라 참여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개인으로 법률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법률소비자원의 봉사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깊이 이해하여, 향후 법률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이번 봄학기 봉사자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참여한 봉사활동은 미국 의회 절차의 기본 원칙과 운영 방식을 정리한 Jefferson's Manual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의회 운영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며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게 됨은 물론, 번역이란 작업이 전체 맥락과 세세한 부분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음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이기 때문에 담겨있는 법정신 또한 가까워서 느낄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상당히 옛날 문서라 번역하기 까다롭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당 맥락을 생각하고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정치의식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정치의식은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흥미로운 활동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회가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치와 법에 거의 문외한으로 살아오다시피한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또 앞으로 저 자신의 사회참여의식에 대해 다짐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의정 모니터링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주변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실제 공약 파악하는 점이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조사를 직접 하며 이러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겠다는 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약에 대한 조사가 개인적으로 모든 의원들에 대해 행해지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라는 점을 느끼며, 추후 실제 이행률도 조사하며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약 이행률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번거롭더라도, 봉사자의 신분이 아닌 한명의 유권자의 신분으로도 이러한 조사가 절실함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과 정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Jefferson's Manual을 번역하면서 법의 기본 원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정치의식 모니터링과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제가 법률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과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과 정치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유권자로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며, 포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움을 이어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최 ○ 은

사실 나는 법조인이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법률, 정치, 그리고 실무에 대해 매우 무지했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 진로를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들은 흥미로운 법 수업을 기반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결정했고, 현재에는 학교에서 법을 이중전공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들은 수업만으로는 법을 금방 잊고 실무에 다가가지 못해서 나의 꿈이 정확히 무엇인지 감을 잡기도 어려웠고, 크게 다가오지 않으니 그에 대한 동기부여도 미미했다. 따라서, 더 넓은 법과 정치적 지식을 쌓고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 대외활동을 찾아보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는 평소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아 정치에 대한 배경지식이 매우 부족해서 사실 의정 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매우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 활동 중 법정 모니터링 분야가 있다는 것을 보고 실제로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법정을 가고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했던 것 같다.

내가 가장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었다. 지원한 봉사자 단체로 가는 활동이었고,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법원의 크기와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가방까지 검사하는 등의 절차로 입장할 때 괜히 두려움을 느꼈다. 법정 안에 입장하고 나서도 계속 긴장한 상태로 기다렸다. 처음 실제로 본 검사님은 검사 옷을 입고 굉장히 두꺼운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이후 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 또한 판사 전용 옷을 입고 높은 단상에 들어와 앉은 모습이 매우 멋있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는 내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변호사 분이 안 오셔서 아쉬움이 컸다. 이후 시험기간으로 인해 4월 동안은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5월에 처음으로 혼자 법정 모니터링을 하러 서울 북부지방법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사실 모니터링 보고서에 적히지는

않았지만, 나의 첫 법정모니터링은 실패하였다. 매우 긴장한 상태로 가방을 검사하고 '오늘의 재판' 게시판을 보았는데, 학교를 마치고 가서 그런지 재판이 두 개 정도만 남아 있었다. 두 개 모두 '조정실'에 있다고 하여 들어가도 되는 법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일단 개정하기 전까지 법정 앞에서 기다렸다. 예상대로 매우 작은 규모의 법정이었으며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조정하고자 만든 곳으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방청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다. 비록 모니터링에는 실패하였지만 혼자 법정을 방문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후 내가 성공한 첫 법정 모니터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모니터링을 거부 당할까봐 두려워 형사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입장을 머뭇거렸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입장하니 사법감시배심원단 때처럼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막상 재판 당사자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실제로 재판 과정을 보니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법원 직원까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혔고, 재판을 보러 갈 때마다 뿌듯함과 함께 나의 꿈에 있어 동기부여가 되어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어떤 봉사활동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인 법정치 설문조사와 언론모니터링, 그리고 의정 모니터링까지 하게 되었다. 법정치 설문조사는 가장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사실 평소에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친구들이 내 생각보다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각기 다른 생각을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다. 그리고 언론 모니터링은 사실 이번 봉사활동 중에 가장 힘들었던 봉사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슈 분석이 아닌 사실 분석을 택하였다. 나는 평소 뉴스를 잘 보지 않아 여당과 야당이 각각 현재 어느 정당인지조차 헷갈려 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다양한 카페 신상이나 옷, 케이팝 등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여태까지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 반성을 하게 되었다. 1주일간 10대 일간지가 게재하는 모든 사설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분량이 많은 활동이었다. 하지만 언론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일본의 라인 경영권 문제 등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사설을 1주일 분량만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당과 정치의 흐름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 또한 나는 우리나라 10대 일간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각자 어떤 성향을 띠는지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 활동을 통해 각 일간지의 경향 등까지 모두 알게 되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얻은 느낌이었고, 앞으로도 사설이라도 뉴스를 꾸준히 보며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의정 모니터링의 경우에도 주변 어른들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한다라는 말만 듣고 실제로 국회의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나쁘게 바라보곤 했었다. 하지만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우리나라 지역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의정 모니터링 대상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조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충남 아산을 말고 있어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학교 다니면서 하기에는 조금 벅찰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매우 많았고 단순히 봉사 시간과 수료증뿐만 아니라 나의 꿈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었고 나의 열은 배경 지식을 크게 넓혀주었다. 나와 같이 아직 진로에 있어 동기부여가 부족하거나 지식의 폭을 넓히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봉사활동은 꼭 추천하고 싶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최 ○ 윤

2024년 봄학기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세 번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특히 법률 문서의 번역과 정치적 의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교육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애국주의교육법과 회사법, 그리고 미국의 상원매뉴얼을 세밀하게 번역하면서

법적 언어의 정밀함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텍스트가 지닌 문화적 및 정의적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고양시갑과 서울시 노원구을의 의원 공약을 분석하는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과 정책의 영향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효과적인 정치 참여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활동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넘어, 다양한 법제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시야를 넓혀가며, 보다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번역 봉사활동은 제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애국주의교육법과 회사법, 미국의 상원매뉴얼 번역은 문화와 법의 교차점에서 깊은 이해와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법률의 번역 과정에서는 중국의 교육 및 기업 운영 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의 사회적 맥락과 법적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서는 작업으로, 법률 용어와 정치적 맥락의 정밀한 이해를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매뉴얼의 번역 작업을 통해서도 미국의 정치적 구조와 법적 절차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문서의 정확한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법률적 문서가 갖는 문화적 맥락과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번역 작업은 단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법의 정신을 파악하고, 다양한 법제도 사이의 pontes를 놓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문화적 가치와 정치적 맥락의 정확한 전달은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 간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겸비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가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은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정책 반영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갑과 서울시 노원구을에서의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입안의 복잡성과 국회의원들이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며, 정치적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치외교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주변 대학생들의 법적 및 정치적 의식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이 설문은 또래 대학생들의 법률 및 정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의정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봄학기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및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동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및 문화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방면에서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최 ○ 안

첫 번째 활동에 충분히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다른 분야의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2024학년도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재차 신청하게 되었다. 작년에

비해서 형법, 세법 등 다른 법 과목들에 대해 수강을 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하였기에 더욱 알차게 교과 공부와 더불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저번 활동과 더불어 법률 용어를 영어로 접할 수 있는 번역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번역봉사활동의 경우 미국하원 의사 규칙과 미국상원 의사 규칙을 중심으로 3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기존에 형식적인 법령을 번역해본 경험은 있으나, 의사규칙과도 같은 법령들을 번역해본 경험이 없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한국의 입법부 제도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의사규칙을 번역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국의 입법부 체제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양원제로 운영되는 미국의 입법부 체제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규칙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원이 상원에게, 상원이 하원에게 법령이나 제안서를 제출할 때의 형식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로 제안서를 송부하고 의결을 함에 있어서 미국 헌법의 정신이 중시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모든 제안서 양식마다 헌법의 정신과 독립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의결을 한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이번 학기에 새로 접해본 세법에 대한 판결문을 다루어 보았다. 이론을 배운 뒤 사례로 몇 개의 판례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직접 세법과 관련한 판례를 다루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결정청구에 대한 판례를 다루었는데, 조세와 관련한 판결의 특성상 행정부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심판 및 행정판결의 절차적인 측면들을 알아야 했기에 이번 판결문 리서치가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세법을 수강하면서 행정심판 및 판결의 절차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절차들이 조세재판에서 적용되는 단계들을 알 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처음 세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률 용어가 어려울 수 있었기에 여러 용어들의 해설에 더욱 집중하여 판결문 리서치를 하였던 것 같다. 특히 법인세결정청구 건에 관하여 에스케이하이닉스라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었기에 더욱 흥미있게 리서치를 진행했던 것 같다. 세법은 시행령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개정도 비교적 빠르고 자주 되는 편이기에 경과규정을 두고 여러 법적 다툼이 벌어진다든 점도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다.

다음 학기에도 흥미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리서치를 더욱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유익한 활동이 된 것 같아 뿌듯한 활동이었다.

○ 연세대학교 스포츠융합산업학과 최 ○ 준

지난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사법감시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최신 판결문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대한 판결문을 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판사의 판단 근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판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법률 시스템에 대해 어떤 기대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사법 제도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법률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서 역할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감시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 소비자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소비자연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률 시스템의 발전과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배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최 ○ 현

로스쿨을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법 관련 활동을 찾아보던 중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2024년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사회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관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했고 해당학기 사회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판결문리서치를 하였는데, <세월호 배상청구권의 소멸여부>, <중여세부과처분취소>, <영등포세무서 법인세 고처분 취소>, <제주항공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리서치 하였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하면서 기본적인 판례를 보는법부터 시작해서 재판관들의 법리적인 해석,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 경향성 등을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수 활동이었던 의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볼 수 있었고 정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제가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했던 활동이라 그렇게 큰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제 미래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확신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 활동들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 ○ 원

솔직히 말하자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길에 평소 저의 관심 분야였던 법률에 관련된 활동 중 당장 이번 학기에 큰 자적 요건 없이, 상시 지원이 가능했기에 법률소비자연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시작 계기는 저의 게으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제가 4학년이 될 때까지 졸업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미루지 않았더라면, 미리 하고 싶은 타 봉사활동의 시기를 적절하게 준비했더라면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굳이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으레 그래왔듯이 방학 내내 게으름을 피우다가 개강이 다가오는 시기에 알찬 다음 학기를 준비하겠다고 늦은 준비를 하였고, 당시에 가능한 법률 관련 봉사활동은 오직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러한 우연이 저를 법률소비자연맹으로 데려와 깊은 깨달음을 주고자 했던 운명을 만든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해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의 기대보다 알찬 구성으로 준비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총선거가 끼어있던 시기와 관련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었고, 이에 따라 '의정모니터링'을 주된 활동으로 삼아 봉사를 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기존에는 힐끗 보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선거공보를 원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보다 확장될 때 정책 역시 관심을 두는 시민의 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책을 실제 실현하지 염려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추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모니터링에 직

접 참여하며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쁜 학사 일정 탓에 사전에 계획했던 봉사활동을 미처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저는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을 분석하며 법적 소양을 기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4학년이라는 고학년의 일정을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시험과 과제의 바쁜 일정 탓에 본래 봉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 이에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계 혹은 동계의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활용이 용이한 방식에 봉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종류와 양의 봉사를 원 없이 할 수 있을 것이기에 매우 기대가 큼니다.

저의 활동이 얼마나 사회 발전 및 법의 증진에 이바지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와 같은 소소한 시민의 관심이 모인다면 이것이 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행동일지라도 이것이 모인다면 언젠가는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조금이나마 사회에 참여한다는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이러한 보람을 꾸준히 감각하여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의 발전에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이 있었다는 점이 기쁘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올바른 사회발전에 힘쓰고 싶습니다.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한 ○ 원

국제법무학과라는 특수한 전공에 진학하여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배우면서 한국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와 실무 경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정치, 언론, 사법 분야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서 다른 봉사활동 참여자들과 함께 재판을 참관했을 때, 이전에 개인적으로 재판을 방청했을 때와는 달리 검사 측과 변호사 측 모두 재판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서 배심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처럼 과열된 분위기는 아니었고, 판사님을 비롯한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일원들이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며 훈훈한 분위기로 재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무는 미디어에서 비추어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의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생각보다 더 터무니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로서의 태도가 장차 우리나라 정치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치의를식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현재 정국에 대체로 불만이 있지만, 무엇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공약을 참고하여 현명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언론, 정치, 사법 분야를 고루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이 매우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매뉴얼을 번역하면서 미국법을 배우면서도 접하기 어려웠던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자세한 규제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법을 배우며 가장 까다로운 점은 영어 단어의 일반적인 뜻과 법률 용어로서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번역을 통해 많은 법률 용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법률문서를 번역하는 경험은 대학생들이 훗날 비교법적 연구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생들을 생각하며 다양한 법 관련 활동을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한 ○ 원

2022년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벌써 5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봉사활동과 유사

한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그동안 느낀 점과 다른 점들도 있어서 기억에 남았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먼저, 법정치 설문조사 봉사활동을 통해서 평소 쉽게 알지 못했던 우리 세대의 인식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현재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식을 조사함과 동시에 정치에 대한 관심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년 세대의 정치에 관한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정치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감시하는 국민의 역할에 그만큼 소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활동을 통해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문지에서 보완할 점을 찾게 되어 직접 정리해 따로 메일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연맹에서 제가 보낸 부분을 살펴본다고 답장해주셔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면 더욱 질 좋은 조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의정 모니터링 중 공약 분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지는 공약 이행률 조사의 기반이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으면서도 중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공약 분류를 하면서 300개 이상의 공약을 선거 공보에 작성한 국회의원을 보았는데, 그간 공약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았던 공약 중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당수의 공약이 동이나 구의 시설 수리 및 교체에 대한 이야기라 국회의원이라면 해당 지역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도 동시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지난 학기에 봉사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그에 더하여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서 가장 유용했던 활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교권에 대한 민원으로 인한 침해가 정당한 간섭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리서치할 기회가 있어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고 나니 대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의 모습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점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사회의 모습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의 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허 ○ 아

법률연맹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 '사법감시배심원단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음 만난 윤소라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법률연맹 봉사활동이 봉사활동 계의 고시 공부'라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렇게 한 학기 활동을 다 하고 보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다. 나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종류별로 신청하였고 그 결과, '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국회의원 공약 분석, 법정치의를식조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번역 봉사활동으로 미국 법전 중 입법절차집행법에 대해서 번역을 했었는데, 그냥 번역도 전문가처럼 하기 어려운데 법전을 번역하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해도 이해가 안되는 문장이 많았고,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 번역하고 있는 법 자체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해서 번역 자체의 시간뿐 아니라 정보조사시간도 많이 필요했다. 복잡하고 외국어인데다가 오래 걸리기까지 하니깐 더 어렵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법전을 번역하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법이 제정되는지 과정을 알 수 있었고, 미국 의회의 구성을 느껴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상원과 하원 두 개로 의회가 나뉘어 있는데, 두 의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은 더 낫고 배울 점이 있는지 등 법과 관련하여 식권

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 역시 만만치 않았다. 드라마나 책에서 보는 것과 같이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억울한 피해자처럼 선과 악이 확실하게 이분화되어 있다면 판결이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세상일은 그렇지 않았고, 항상 잘못과 피해자를 명확하게 짚을 수 없어 어려웠다. 두 사람 사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둘 다 약간의 잘못을 가지고 있으나 둘 다 억울한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게 역설적이었다. 이에 어떤 것이 최선일지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결론을 내리기 너무 어려웠다. 또한 재산의 증여 부분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유류분 비율에 대해 완전한 배움과 숙지가 없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검색해서 계속 읽어봐도 쉽게 이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변호사는 이런 지식을 완전히 숙지하고 의뢰인을 돕기 위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지만, 나의 장래희망인 법조인들이 하는 일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 가장 기대가 되었었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늘 10분 정도씩 하고 끝났어서 조금 아쉬웠다. 법원은 전반적으로 엄숙했고, 검사님 옆에 서류가 정말 '산'만큼 쌓여 있었는데, 상당한 업무량이 생생하게 보여서 인상깊었다. 그 밖에도 국회의원 당선인 공약분석, 법 정치의식 조사활동을 이 변하기 필수 봉사활동으로 했었다. 국회의원의 선거공보가 11장씩이나 되는지 처음 알았고, 굉장히 많은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소속당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지역을 위해 해내고자 하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경험이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정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22살이 되도록 선거공보 한 번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부끄러웠다. 또 법 정치 의식 조사활동은 내 주변인들에게 설문을 부탁하는 것이었는데, 통계를 내면서 친구들의 답변을 읽어보니,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법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를 느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많은 친구들이 나와 달리 정치에 대해 신념도 있는 것 같고 자신만의 기준도 있는 것 같아 나도 시사소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다른 어떤 봉사활동보다도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했던 것 같다. 애초에 내가 공지사항을 보고 봉사를 신청해야 했고, 봉사활동 자체도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하나 대중해도 되는 것이 없었던 것 같다. 다 조금 어렵고 각각의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배우는 게 많은 활동이었다.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다 해내고 나니, 웬지 나의 능력이 성장한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법률연맹에서 쌓은 법 관련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꿈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홍 ○ 정

2024년도 봄학기에 국제영역 봉사활동, 2024법정치설문 조사, 판결문 리서치 총 3가지 활동을 하였다.

2024법정치설문조사의 경우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현행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설문조사 문항 또한 상세히 제시되어 있어 이들의 법의식을 조사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국제영역 봉사로 신청한 번역 봉사 활동은 세 가지 봉사 활동 중 가장 고난이도였다. 법전 번역 활동의 난이도는 다른 두 봉사활동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총 20페이지를 번역하는 활동이었다. 법률이다 보니 한 문단이 2000자일 정도로 호흡이 상당히 긴 문단과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지난 학기에 1개 정도 해서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2개 정도 할 수 있었다. 주로 고용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 첫 번째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다루었다면, 두 번째 판례는 형사 소송이었다. 다음 학기에 형사 소송 판례를 선택해서 좀 더 범위를 넓려 향후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치설문조사 1시간, 번역봉사 활동 20시간, 판결문

리서치 10시간 총 네가지 활동을 완료하여 오리엔테이션 제외하고 31시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황 ○ 은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의 전공 분야인 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가장 배울게 많고 뜻깊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 학부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적용해보며 사건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위 판결이 타당한지를 따져보고 만약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법적 사고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리서치는 세월호 사건의 국가 손해배상과 소멸시효에 관련한 리서치였다. 학교 <행정구제법> 시간에 배웠던 국가배상을 직접 적용해보고 싶어서 골랐던 판례였는데 올해가 마침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더 의미있었다. 위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률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국가는 항상 국민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는 것이다. 법학과 학생으로서 학부 과정에서 배웠던 국가배상을 직접 판결문을 읽어보고 적용해보면서 행정법에 대하여 더욱 깊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위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국가배상에 대하여 더욱 이해하고 공부해보고 싶어 두 번째 판결문 리서치 또한 국가배상 사건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국가배상에 대하여 더 깊게 생각해보고 공부해볼 수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1심부터 3심까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대법원의 판단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이 판단이 옳은 것일지를 확인하고 생각해보면서 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다. 다음은 상원법률 번역봉사를 진행했는데, 번역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이 또한 판결문 리서치와 마찬가지로 학부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강하는 영미법을 배우면서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의 체계 등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실제 미국의 법률을 해석해보면서 적용해보았다. 번역봉사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접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률과 다른 나라의 법률의 차이를 생각해보 수 있었고, 다른 법률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법률에도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법률봉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추후에 법조인이 되어서,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끝없이 들었다. 사법감시라는 봉사활동에 더불어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보람찬 활동이 된 것 같다. 3학년에 늦게 알게 되어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봉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

